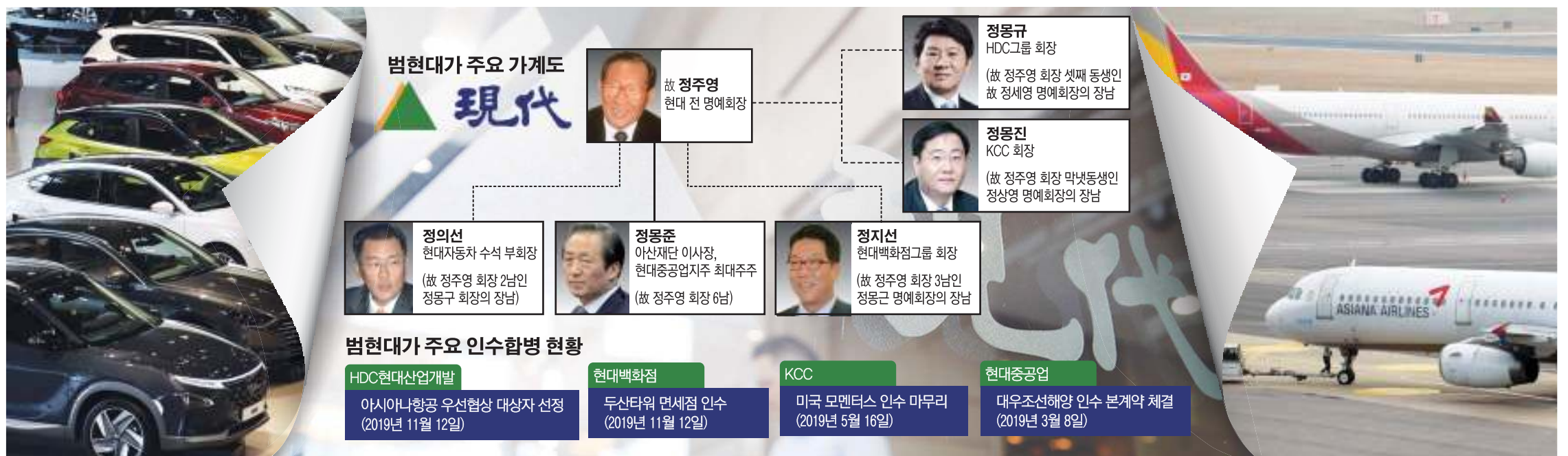




〈자동차·조선·항공〉

# ‘육·해·공’ 품고 도약... 汎현대가의 ‘화려한 부활’



## M&A로 존재감 키우는 형제들

20여 년 전 이른바 ‘왕자의 난’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범(汎)현대가의 행보가 예상롭지 않다.

올 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의사를 밝히며 세계 1위 조선사 출범을 공표한 데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되자 범현대가는 ‘육(자동차)·해(조선)·공(항공)’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집안으로 거듭났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은 줄줄이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나홀로 전진하고 있다.

재계 순위 만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한 범현대가가 실적 개선, 사세 확장은 물론 연관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며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12일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두산

면세점 사업을 품게 됐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됐다. HDC현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성공하게 될 경우, HDC그룹의 재계순위는 지난해 기준 33위에서 20위 내로 올라서게 된다.

정몽규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모빌리티에 미래 축을 두고 있는 정지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과도 협업 구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차)를 중심으로 한 항공 운송서비스가 ‘당숙-종질’ 간의 접점이 될 수 있다. 플라잉카는 헬리콥터나 경비행기 등과 달리 소음이 적고 육상 운송수단에 비해 훨씬 빠른 이동수단으로 정지선 수석부회장 역시 최근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 분야다. 오랜 기간 다소 서먹했을 수 있는 범현대가 내에서의 새로운 시너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같은 날 (주)두산과 면세점 임대계약을

## 육 〈자동차〉

현대차, 불황에도 나홀로 전진  
‘플라잉카’ 미래 신사업 육성

## 해 〈조선〉

현대중, 대우조선해양 인수  
글로벌 1위 조선사 출범 공표

## 공 〈항공〉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현대차와 항공 운송 협업 기대

:

현대백, 두산 면세점 임대 계약  
KCC는 세계적 실리콘 기업 품어

체결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역시 주춤해진 면세점 사업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은 두터면

세점에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내년 창사 62주년을 맞는 KCC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5월 세계적인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 경영권을 확보했다.

모멘티브 인수로 KCC는 세계 실리콘 시장에서 미국의 다우, 독일의 바커 등과 함께 선두 기업군에 오르게 됐다. KCC 정몽진 회장은 고 정주영 회장 막냇동생 정상영 KCC명예회장의 장남이다.

KCC는 실리콘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주력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국제적 신용도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범현대가의 기업 인수합병(M&A) 움직임은 다양한 사업 간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진성 키움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오일뱅크는 항공유, 현대백화점그룹은 면세점 및 기념품, 현대해상은 보험, 현대중공업은 물류, 현대카드의 마일리지, 현대아산은 대북사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대차와 플라잉카,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협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나홀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눈에 띈다.

한동안 중국, 미국에서 판매 부진 등으로 주춤했던 현대자동차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에 지난해보다 26.4% 늘어난 2조 6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운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이 효과를 거뒀으며, 여기에 달려 강세가 가세해 수출 중심의 자동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며 판매 부진을 메웠다.

3분기 영업이익 역시 1년 만에 30% 이상 급등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범현대가의 최근 행보를 보면 상호협력 차원에서 M&A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의 옛 명성에 걸맞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 정주영 회장께서 ‘운이란 때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범현대가는 좋은 때를 만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송영록 기자 syr@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h 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 냉장고 쪼개 사고, 세탁기 벽에 달고… 가전은 ‘小小益善’

## 취향저격 ‘소형가전’

크기는 줄이고 성능은 강화한 미니 가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3인 이하 가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자 가전기업들은 이에 맞춘 소형 가전 출시로 소비자 선택폭을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의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서 판매량 2만6000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 4초에 1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한 달 판매량의 5배에 버금가는 기록이다. 누적 판매로는 10만 대를 넘었다.

이 제품은 세탁 용량이 3kg으로 두께 30.2cm 초슬림 제품이다. 벽면 설치가 가능하고 별도의 거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공간 효율성,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탁물을 넣고 꺼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니 가전은 이미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에어컨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중소형 주거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동식과 창문형 에어컨이 틈새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신일산업은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했고,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을 선보였다. 이들 제품은 흡소풍 방송 등에서 준비된 물량을 모두 소진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LG전자도 1인 가구를 겨냥해 냉방면적

벽걸이 드럼, 광군제 최대 매출 손 안의 공청기·블록형 냉장고 1인가구 겨냥 틈새시장서 성공

26㎡(8평형)용 실외기 일체형 이동식 에어컨을 출시했다.

에어컨 설치 타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조사 업체 GfK에 따르면 올해 에어컨은 기존 투인원(2 in 1)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스탠드 에어컨 판매량이 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탠드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6% 성장했다.

GfK는 “작년 폭염의 경험으로 스탠드 에어컨의 잠재 수요 계층인 1인 가구 소비자가 늘었으며, 스탠드 에어컨은 가족 세대에 적합한 투인원 제품보다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떼었다 붙이는 ‘블록형’ 방식의 가전제품으로 1인 가구를 겨냥했다. 맞춤형 가전인 ‘비스포크(BESPOKE)’ 냉장고는 1도어에서 4도어까지 다양한 모델로 구성돼 소비자가 가족 수, 주방 형태 등에 따라 조합할 수 있게 했다.

대우전자의 소형 다목적 김치냉장고인 1도어 스탠드형도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는 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1인 가구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를 겨냥 ‘주류 전용 모드’를 추가했



다. 이 기능은 소주·맥주 등 주종에 따라 가장 맛있는 온도로 각기 보관 가능하다. 김치를 많이 보관하지 않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특색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015년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결합할 수 있는 통돌이 세탁기 ‘미니워시’를 출시했다. 고객들은 미니워시만 구매하면 드럼세탁기나 건조기와 결합해 트윈워시로 사용할 수 있다. 트롬 건조기 하단에 미니워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고객도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두 배 늘었다. LG전자가 야심 차게 준비한 휴대용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미니’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3월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는 상반기 대만과 홍콩 등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등으로 보폭을 넓혔다.

LG전자는 연내 미국과 러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출시 국가를 1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500ml 생수 한 병과 비슷한 무게로 자동차, 유모차, 사무실, 캠핑텐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니 가전 전성시대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30년 동안 연평균 9만1000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에서 2047년 37%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부부 가구 비중은 매년 5만7000 가구가 증가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연 8만4000 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은 SUV를 넘어 세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형차인 엑센트(사진 위부터 아래 방향)와 아반떼급의 준중형차가 누렸던 베스트셀러 지위는 이후 중형차 쏘나타에 이어 준대형차 그랜저까지 확산했다. 사진제공 현대차

연비 높이고, 덩치 키우고…

## 마이카는 ‘大大益善’

### 자동차 ‘사이즈 업’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자동차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다양한 전자장비가 차 안에 속속 스며드는 동시에 넉넉한 공간이 주는 편안함에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까닭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도 덩치 큰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을 성큼 밀어냈다. 무엇보다 다양한 안전기준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크기=안전’이라는 등식이 자동차 산업 곳곳으로 확산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대형 SUV 시장에 대한 산업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성기를 개척한 모델은 출시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없어서 못 판다”는 현대차 팔리세이드다. 전작이었던 테라칸과 베라크루즈가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두며 단종한 이후, 국내 SUV 시장은 사실상 현대차 쏘나타페와 기아차 쏘렌토 등이 주도했다.

크기의 전쟁은 세단도 마찬가지다.

한때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단골로 이름을 올렸던 준중형차 아반떼는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 1위 자리도 중형차 쏘나타, 준대형차 그랜저에 차례대로 내줬다.

동시에 엔트리급 소형차로 인기를 끌었던 엑센트는 국내에서 수요 하락으로 단종한 지 오래다. 인기 차급도 상승했지만 상대적으로 차 크기도 늘어났다.

한때 기아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대형 세단 엔터프라이즈(2002년 단종)보다 2005년 등장한 현대차 NF쏘나타의 길이와 너비, 높이가 훨씬 크다는 점도 이런 추세를 증명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우선 엔진 사이즈를 줄이고 차 크기를 키워도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12기통 6000cc로 점철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3사는 이 무렵 최고급 모델의 배기량을 3000cc 안팎까지 줄였다.

여기에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가스의 등장, 친환경 전기차 급증까지 겹쳐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름값 부담을 덜고 대형차를 탈 수 있는 셈이다.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마저 소득수준의 향상과 차종 다양화 시대를 맞으면서 덩치 큰 차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힘이 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스운용 NH신물 NH농협카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  
농업·농촌·농협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 勞·使·野 모두 반발…中企 주 52시간 출발부터 ‘배격’

준비 부족에 中企 반발…‘주 52시간’ 1년 유예

경영계 “근본적인 대책 안돼”  
노동계 “자의적인 행정 남발”  
야당 “입법 권한 무시한 처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담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18일 내놴.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각각 반발하고 있고, 야당도 비판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먼저 계도기간 부여의 경우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 대상

- **계도기간 6개월 이상 부여**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 유예)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인가 허용 요건, 재난에서 경영상 사유도 포함
- **구인난 심각한 기업,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 한시적 상향 조정**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

※ 출처: 고용노동부

많은 최대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연재해 등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일시적 업무량 급증과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 등 급박한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의 경우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고려해 20%로 상향한다.

이번 보완대책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것을 대비하고,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

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와 함께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보완대책이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규칙 개악으로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정부의 보완대책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을 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정부가 애초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경제를 망쳐놓더니 이제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회색 불가 상태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중기 어려움 일부만 반영 연내 보완입법 통과돼야”

### 중소기업 반응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완입법이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6개월이 부여됐지만, 그간 우리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 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서 중기중앙회는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을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보완대책에서 주 52시간제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되지 않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특별연장근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최장 3개월 동안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기업회생 지원합니다”

은성수(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캠프양재타워에서 열린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MOU 체결 및 현장 간담회’에서 정형석(네 번째) 서울회생법원장, 문창홍(두 번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10월 실질금리 0.65%…OECD 상위권

### KDI “선제적 금리인하 필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연 0.65%였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에서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을 뺀 값이다.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10월 물가 상승률이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5.20%), 멕시코(4.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역대 최저인 1.25%로 낮췄다. 하지만 10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0.6%에 그치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랐다. 저물가에 따른 실질 기준금리 상승은 곧 체감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

다. 이 같은 투자 부진은 다시 추가적인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땐 기준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춰 체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같은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권고했다.

정규철 KDI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통화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물가가) 이미 다 하락하고 나면 반등 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향후 6개월 정도 시계를 봤을 때 그 사이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일단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내려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철도노조 내일부터 총파업…정부, 중재는커녕 ‘뒷짐’

KTX·광역전철 최대 30% 운행  
정부 “노사간 합의” 원칙만 강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상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충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차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에스알)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파업에 따라 KTX와 광역전철, 여객·화

물 열차는 최대 30%만 운행하고,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도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 사항인 인원 충원과 자회사 문제 모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서 경고 파업에 이어 이번 파업에서도 비상수송대책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김경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만 밝혔다.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

리적 방안 도출로 열차운행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나 있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1일 조합원에 보낸 답화문에서 “노정협의를 진행되지 않고 교섭안에 진전이 없는 상황은 철도노조가 정부에 부담을 줄 정도의 투쟁 결의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철도노동자의 요구 쟁취는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대응이 노조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달 파업에서도 문제가 됐던 군 병력 동원을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對日 무역적자 21% 줄어…16년 만에 최저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서 시작한 한일 경제 분쟁이 오히려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만에 최저치가 확실시된다.

올해 들어 글로벌 협박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NO 재팬’으로 불리는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

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수지의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 달러)보다 20.6%나 줄었다.

역대 1~10월 기준으로 보면 2003년(155억66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190억3700만 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임종석 불출마 놓고 86세대·靑출신 ‘불편한 심기’

임 전 실장 결정에 민주 ‘술렁’  
86세대 ‘용퇴 압력’ 의식 긴장  
‘靑출신 출마자’에 경고 해석도  
비문, 양정철 행보에 불멘소리



위해 당내에서 오랜 기간 기득권을 지켜온 86 그룹에 대한 용퇴론이 거론되고 있다. 임 전 실장보다 앞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철희 의원은 “86세대가 2000년쯤부터 국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일추 20년은 했다. 이제 물러나면 좋겠다”고 세대교체를 거론한 바 있다.

86세대 그룹에 속하는 의원들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자신들을 겨냥한 인적 쇄신론으로 확대되는 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는다.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기득권화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임 전 실장도) 복합적으로 봤을 때 멀리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파장을 다른 곳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86세대 일부 의원을 포함해 ‘비문(비문재인)’ 그룹에 속하는 의원들은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점에 무게를 두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가장 상징성이 큰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에게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국정기획상 황실장, 운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수현 전 대변인, 권혁기 전 춘추관장, 김우영·김영배·민형배·북기왕 전 비서관 등 내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7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 그룹에 속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갑자기 지역에 발목을 박으려 하니 여기저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경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비문 그룹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한 불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결론

쇼핑·부동산 독점력 이용...제재 담긴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에 검색 포털·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지위 남용 혐의로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의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차단해 부당한 이

득을 취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 TV를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봤다.

공정위는 네이버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께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네이버가 제재를 받는다면 정보통신 기술(ICT) 분야에서 올해 들어 아홉 번째가 된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총 3건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네이버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치협상 실무회의의 여영국 정의당(맨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치협상회의의 실무모임에서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3차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실무회담서 ‘비핵화·상응 조치 신속한 합의’ 선행조건 전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선행조건이 만족된 후에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나는 당신(김정은)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썼다.

특정 시기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하지만 “빠른 행동”과 “합의”를 전제로 달아 실무회담에서 신속하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3차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주말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한 만큼 이에 협상에 나서라는 촉구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17일 태국 방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나왔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란다”며 북한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달 초까지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관련해 “북미 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특수부대의 침투훈련을 직접 지도하는 등 군사 분야 시찰을 늘리며 대화가 아닌 ‘전쟁 준비’로 대응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부대 대원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 다만 북미가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한다면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 이전이나 내년 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일환 기자 whan@

# 새로운 에너지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여깁니다.

**한국에너지공단**

# 美 “제2 텐안먼 우려”… G2협상 변수된 ‘홍콩’

무역합의 기대감 증시 상승세 속  
美 ‘홍콩인권법안’ 통과 협상 찬물  
中 “내정 간섭 말라” 불편한 심기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수개월째 시위가 계속되는 홍콩이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안)’을 추진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막판 미·중 무역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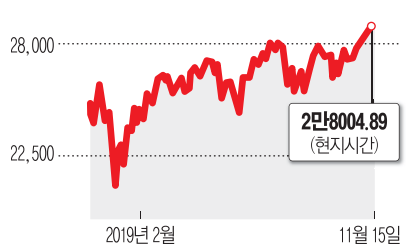
지난 주말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장관급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 8000선을 돌파했다.

무역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로 18일(현지시간) 아시아증시도 뉴욕증시의 호조를 이어갔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2만 3416.76으로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2시 기준 0.66% 상승했으며 심지어 홍콩증시恒生지수도 약 1%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은 미국 의회의 ‘홍콩인권법안’ 통과로 미·중 무역협상이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인권법안은 홍콩에서 부당한 구속 등 인권 침해가 있으면 관세와 비자 발급 등 미국이 홍콩에 대해 부여한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미 미 하원이 지난달 중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상원도 이르면 이날 표결에 들어가 가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안이 상·하원 가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하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하다. 이는 최종 합의로 접근하는 1단계 무역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중국과 무역 전쟁에 돌입했지만, 의회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홍콩인권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은 홍콩 시민의 분투를 전 세계 자유 진영이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낼 필요가 있다”며 조기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하고 있어서 홍콩인권법안은 미 여야를 넘어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닷케이는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하이테크 분야의 패권 다툼으로 전선이 확대된 가운데 미 의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새로운 대중국 제재의 길을 열게 되면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또한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더욱 선명하게 할지, 아니면 조기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사시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를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홍콩 시위와 관련해 “텐안먼 때처럼 중국이 시위에 무력으로 개입하면 미·중 무역 협상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며 “인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홍콩의 반(反)정부 시위대가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의 정문으로 통하는 계단에 불을 지르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이미 홍콩 중문대,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철수한 시위대 입장에서 홍콩 이공대는 '마지막 보루'다. 이처럼 격렬한 저항에도 홍콩 경찰은 이공대 진입에 성공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았고,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까지 동원하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홍콩/AFP연합뉴스

## “자유 아니면 죽음을”… 홍콩은 전쟁터

홍콩 사태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계속되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새벽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에 진입했다.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중문대와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 대학에서 시위대가 철수한 만큼 이공대는 시위대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공대에 진입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다. 이공대 안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머무르고 있으며, 곳곳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전날 시위대는 이공대 교정과 흡합 지하철

‘최후 보루’ 이공대서 격렬한 충돌  
화염병 공격에 경찰 ‘음향대포’

역을 잇는 육교 위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넘어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심지어 시위대는 활까지 동원, 경찰 한 명 이다리에 화살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를 처음 등장시켰다. 이 장치는 2009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시위 진압 때 처음 등장했다. 음향 대포에 맞을 경우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구토, 어지러

움 등을 느낀다고 한다. 경찰은 “시위대가 화염병, 활 등 살상용 무기로 공격을 계속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공대 인근에는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막사가 있다. 이날 인민해방군은 카오룽통 지역의 주둔지에서 나와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으려고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군 내 최강 대테러 특전부대도 포함돼 있어 중국이 홍콩 시위 사태에 무력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홍콩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홍콩 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내린 전면 휴교령을 18일까지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고작 38兆 들고 넘보다니…” HP, 제록스 인수제안 퇴짜

“가치 과소평가” 만장일치 거절

개인용 컴퓨터(PC) 및 프린터 제조사인 휴렛팩커드(HP)가 미국 사무기기업체 제록스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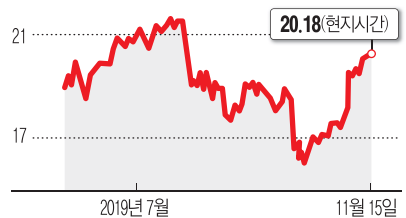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HP 이사회는 이날 제록스의 제안이 자사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만장일치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제록스는 이날 초 HP를 주당 22달러, 총 335억 달러(약 38조 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제록스의 HP 인수 제안이 알려졌을 때부터 거래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HP의 시총은 약 270억 달러로, 제록스(80억 달러)보다 세 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HP는 인수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았다. HP는 서한에서 “통합할 경우 잠재적 이익을 인정한다”며 향후 인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합병이 성사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제록스 지분 10.6%를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은 최근 HP 주식 12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그는 비유

휴렛팩커드 주가  
(단위 : 달러)



절감 가능성, 프린터 부문에서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할 때 합병된 회사가 양쪽 주주 모두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두 회사의 합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본사를 둔 HP는 PC, 소형 프린터, 인쇄 용품을 판매한다. 지난해에는 580억 달러의 매출을 냈다. 그러나 HP는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던 프린터와 잉크 판매쪽의 실적 부진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 세계에서 인력 9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인원 5만 5000명 중 16%에 해당한다.

미국 코네티컷주 노워크에 본사를 둔 제록스는 복사기, 프린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한편 문서관리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hun@

## 中 ‘그림자 외환보유액’으로 ‘달러 의존도’ 줄인다

부동산·곡물·금·파생상품 등  
해외 포트폴리오 다각화  
투자 규모 1조8600억 달러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그림자 외환보유액(Shadow Reserves)’ 구축에 나섰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뱅크그룹(ANZ)에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 대신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그림자 외환보유액’을 구축해 달러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미 대안 투자(Alternative Investment)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해외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수년간 중국의 대안 투자가 늘어났는데, 그중 상당수는 국영기업과 은행 등이 거느린 투자 자회사나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펀드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투자에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국영은행의 대출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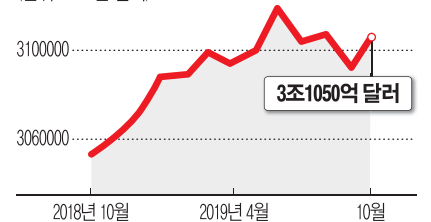
대안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 대신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부동산에서 곡물, 금, 파생상품과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ANZ는 “중국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홍콩에 투자 자회사를 각각 두고 현지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아프리카개발펀드 등으로 전 세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림자 외환보유액”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해외투자 규모는 올해 6월 기준 1조8600억 달러(약 2169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이 약 3조10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림자 외환보유액이 공식 외환보유액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시라즈 알리 AJ캐피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SAFE는 현재 외환보유액 관리에 있어서 고위험 회피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며 “다각화가 외환보유액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Z에 따르면 중국 공식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6월 기준 약 59% 수준

중국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100만 달러)



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 국채 보유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6월에는 일본에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 지위를 넘겨줬다. 반면 중국은 금 매입을 확대, 지난달 금 보유량은 1957.5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는 굳건하다. 전 세계 모든 외환보유고의 약 58%를 달러가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 부채에서 달러 비중도 약 40%에 이른다.

손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외환보유고다각화는 물론 상품 거래를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하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당신의 **봄**

# 정해인이 추천하는 실속 있는 보험 생활



-  **하나** —————  
건강증진형보험에 가입한다
-  **둘** —————  
애니핏을 통해 걷기 목표를 달성한다
-  **셋** —————  
보험료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 삼성화재 건강증진형보험으로 건강도 관리하고 보험료도 포인트로 돌려받자!

### \* 건강증진형보험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 등 혜택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 태평삼대플러스, 천만안심)

### \* 애니핏 포인트 백 서비스

건강증진형보험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삼성화재 모바일 헬스서비스인 애니핏을 통해 매일 걸음 수 목표 달성 시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포인트 제공기간은 최초 보험 계약 체결 후 3년간 제공하며 월 최대 적립포인트는 5만 포인트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나 삼성화재 포인트몰에서 상품,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목표                      | 애니포인트적립                  |
|--------------------------|--------------------------|
| 15일 이상 하루에 6천 걸음 이상 달성 시 | 보장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인트  |
| 15일 이상 하루에 8천 걸음 이상 달성 시 | 보장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인트 |
| 15일 이상 하루에 1만 걸음 이상 달성 시 | 보장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인트 |

\* 보장보험료 중 일부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삼성화재 RC** 또는 **1588-5114**에서 확인해보세요!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 까지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2414호(2019.10.14)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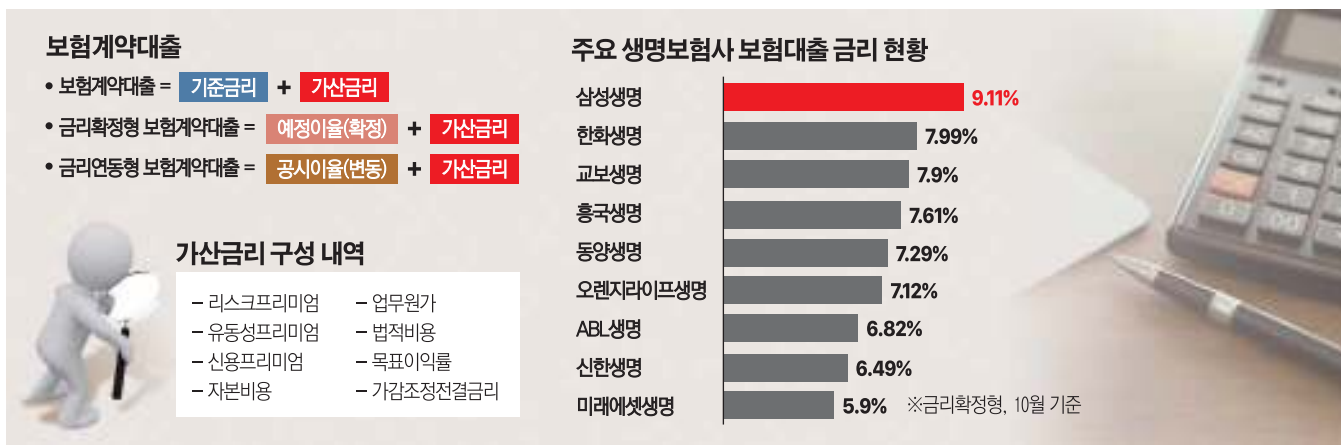
# 금감원, 소비자 울리는 ‘고금리 약관대출’ 현미경 점검

생보업계 대출현황 자료 요청  
가산금리 산출 근거 집중 점검  
이율 계산식 달라 제재는 미지수  
“안내 강화 등 후속 조치 전망”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 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금리에도 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책정 하는 가산금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대출금을 매일 염려가 없음에도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다.

◇삼성생명 종합검사됐 약관대출 점검=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전체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2015년부터의 대출액 현황, 가산금리 현황 등을 제출토록 했다.

대출 관련 회계처리 현황, 각 사별 약관대출 이율 산정 근거와 운영지침 안, 관련



내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도 포함했으며 특히 가산금리 산출 근거를 세세히 적도록 했다. 즉 약관대출에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 종합검사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중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다른 보험사들의 실태도 점검하기 위해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 비용,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 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법률검토 후 보험업법 위반으로 밝혀지면 해당 보험사는 기초서류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보험약관 대출의 가산이율 산출의 위법성 지적에 대한 대응 의견서 검토’ 건으로 법무법인에 입찰 공고를 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회사 자체적인 가산이율 산출 방식은 해석의 차이로 법 위반으로 볼지 모호해 제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는 삼성생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향후 약관개선, 안내강화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일 염려 없는데 고금리, 왜? = 보험약관대출은 은행의 예·적금 담보 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해지 환급금의 60~80% 범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 경기가 어려울 때 증가한다.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 원에서 지난해 63조9151억 원으로 3년 사이에 21.2% 늘었다.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임에도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 대출을 운영하는 23개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평균 금리는 6.78%다. 특히 삼성생명은 9.11%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보험 상품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보장한 금리이며 여기에 환급률 등 내부에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총대출금리가 산출된다.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의 기준금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만 큼은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게 소비자와 당국의 시각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지난해 보험약관대출 실태조사에서 보험사의 대출금리 기준이 모호해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와 중요사항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



16일 안산호수공원에서 OK저축은행 주최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직원들이 김장김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OK저축은행

## OK저축銀, 소외계층에 ‘온정 김치’ 나눔

OK저축은행은 18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6일 경기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는 OK저축은행과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과 대한적십자 봉사단 등 700명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안산은 OK금융그룹 배구단 연고지로, 2013년부터 매년 대규모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OK금융그룹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국제로터리 3750지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만든 김치 40톤은 안산 지역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정, 사회복지 시

설 등 40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OK금융그룹은 안산지역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외에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를 위한 배구클리닉과 안산 고교생을 위한 1사 1교 금융교육, 독거노인 어르신 식사 초청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안산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는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OK금융그룹의 연말 사회공헌 대축제에 여러 단체와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안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를 펼쳐나가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한화생명, 저금리 시대 맞춤형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은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생활 든든한 스마트변액통합종신보험’을 1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설정한 연령(55세 또는 60세)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최대 200%까지 체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가입금액 1억 원, 체증률 200%, 55세 체증 선택 시 54세까지는 가입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다. 55세부터는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증액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사망보험금은 2억 원까지 증가한다. 서지연 기자 sjy@



이 상품은 경제 활동기에는 사망보험금에 집중하다가, 은퇴 후(55~90세)에는 가입금액 일부를 감액하여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성윤호 상품개발팀장은 “추가 납입, 중도인출 등 유니버설 기능으로 자금 운용을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객 중심 외친 손태승 우리은행장 핵심성과지표 ‘24→10개’ 축소 결단

DLF 사태 후 신뢰 회복 초점  
통합 자산관리 등 전문성 향상  
실적 위주 영업 탈피 체질 개선



손태승<사진>우리은행장이 내년부터 은행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절반 이상 줄이고 고객평가 항목을 강화한다. DLF 사태 이후 고객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외형적 영업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으로 은행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손 행장은 18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내년 경영 목표를 신뢰, 혁신, 효율로 설정하고 외형 위주 영업 탈피·고객 중심으로 KPI를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내놴다.

손 행장은 KPI를 기존 24개 평가지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영업점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점별 특성에 맞는 자율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객 수익률, 고객케

어 등 고객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해, 고객중심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도 강화한다.

더불어 가장 비중이 큰 수익성 지표 부문은 종전에 별도로 운영했던 비이자이익 지표를 폐지해 조정 RAR(위험조정이익)로 단일화한다. KPI 목표도 반기에서 연간 기준으로 부여해 단기 실적보다는 꾸준한 고객기반 확대가 더 우대받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했다.

손 행장은 또 여·수신, 펀드, 방카, 카드 등 사업그룹 상품별로 본점에서 영업점에 목표를 배분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관행을 없앴다. 대신 고객과 영업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본부 부서 간 상품·서비스 연구개발(R&D) 경쟁이 한층 강화돼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고객자산관리 부문의 강력한 혁신을 위해 자산관리(WM)그룹과 연금신탁으로 나뉜 자산관리 조직을 자산관리그룹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품과 마케팅 조직을 분리해 자산관리상품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이날 손 행장은 “직접 고객을 대하는 은행인 만큼 더 높은 기준으로 고객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 고객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감은 하지만 실행에 주저했던 과제들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혁신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되자”고 덧붙였다.

내달 18일로 전면 시행을 앞둔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행장은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최고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직원들이 먼저 사용해 보고 자신의 경험을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홈코노미’ 1년 새 2배 성장… 음식 배달·집안 관리順

### KB국민카드 소비분석 리포트

# 직장인 A 씨는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TV 다시 보기 결제 후 평일 동안 못 본 드라마 몰아보기를 시작했다. 동시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 치킨을 주문하고, 주말 동안 요리해 먹을 것을 골라 대형할인점 온라인 숍에서 장보기를 끝냈다.

집안에서의 소비 활동을 뜻하는 ‘홈코노미’가 1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카드가 18일 발표한 ‘홈코노미 소비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홈코노미 관련 업종의 전체 결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결제 건수가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업종으로는 음식배달 업종 결제가 이 기간 2.1배 증가했으며 이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집안 관리 업종이 2.01배, 영상·음악·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이 1.83배 성장했다. 주 결제 고객은 25~34세가 절반 이상(53.7%)을 차지했다.

가전 렌털 업종의 성장도 눈에 띈다. 가전 렌털업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결제 건수가 1.35배 증가했다. 주 고객층은 35~54세 여성으로 전체의 52%를 차

지했으며 25~34세 남성의 비중도 급증세를 보였다.

홈코노미 서비스 사용자의 36%는 지난해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52%는 집에서 여유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에서 ‘가사’를 떠올리는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또 집에서 식사하며 TV와 동영상 등 콘텐츠를 즐긴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KB국민카드가 전국 25~54세 홈코노미 관련 업종 결제 고객 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1조 적자’ LG디스플레이, R&D 투자는 역대급

연구비 10% 늘려…2조 넘길듯  
“中 OLED 추격 저지에 필수적”  
직원은 3900명 감축 ‘비상경영’

LG디스플레이의 직원 수와 평균 급여가 1년 새 크게 줄었다. 1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로 인한 비상경영과 희망퇴직 등에 따른 변화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비는 역대 최대를 집행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G디스플레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이 회사 직원 수는 2만 9108명이다. 작년 9월 말 3만3007명에서 무려 3899명 줄었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1인 평균 급여액도 61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LG디스플레이의 인력 규모는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LG디스플레이는 기존 LCD(액정표시장치)에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전제 임원 및 담당 조직의 약 25% 감축을 단행했다. 이달에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중국 업체의 증설 경쟁으로 LCD 사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9375억 원에 달한다. 실적 악화로 9월에

는 한상범 부회장을 대신해 정호영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LG디스플레이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까지 연구개발비 1조7326억 원을 집행했다. 작년 같은 기간(1조5718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 늘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작년과 달리 10%를 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만에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2조641억 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

LG디스플레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서도 연구개발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OLED 분야에서 중국 업체와의 격차를 따돌리기 위해서다. LC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은 최근 OLED 공장을 잇달아 증설하고 있다.

HKC는 9월 현지에 320억 위안(약 5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라인을 착공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첫 대형 OLED 투자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또한 같은 달 총칭에 6세대 OLED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새로운 생산라인 구축에 들어간 돈만 465억 위안(약 8조 원)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OLED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 8K OLED 88인치

제품을 공개했고, CSO(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와 롤러블 등도 선보였다.

특히 경쟁업체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CTO 산하 조직을 △기반기술연구소 △디스플레이 연구소 등 2개 연구소 체제로 재편했다. 디스플레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OLED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게 사실이지만,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면 LCD처럼 1위 자리를 확고히 차지할 수 있다”며 “선두를 수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투자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한영대 기자 yeongdai@

## 20년 만에 부활한 스포츠카 BMW 8시리즈



BMW 8시리즈 그란쿠페의 차체는 가속할수록 낮게 깔리며 안정적으로 나아간다. 최대출력 320마력, 최대토크 69.34kg·m의 힘을 낸다.

## 2톤 넘는 무게지만 부드러운 코너링 ‘감탄’

강력한 성능에 고급스러운 실내  
차체 낮게 깔리며 안정적 가속

20년 만에 부활한 BMW의 스포츠 세단 8시리즈는 고급스러움과 강력한 주행 성능, 첨단 사양을 집약한 결정체다. BMW 코리아는 쿠페와 그란쿠페, M8 쿠페 컴페티션 세 종류의 뉴 8시리즈를 국내에 선보였다.

4도어 모델인 그란쿠페의 전체적인 외관은 스포츠카 정체성을 드러내듯 바닥에 낮게 깔린다. 길이와 넓이는 각각 5075mm, 1970mm이고 높이는 1410mm다. 그랜저보다 8.5cm 더 길고, 9.5cm 더 넓다. 꽤 큰 덩치에 비해 작아 보인다. 옆으로 넓게 자리한 육각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얇은 헤드라이트, 매끄러운 측면 창문 디자인과 얇게 배치된 리어 램프 등 날렵하고 민첩

하게 짜인 디자인 덕분이다.

실내공간은 3023mm가 넘는 휠베이스 덕에 여유 있다.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콕핏과 대시보드 상단에는 가로로 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한다. 8시리즈즈의 의미하는 숫자 8을 새긴 크리스탈 기어노브와 주변에 최소한으로 배치된 버튼류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를 완성한다.

시승은 전남 영광군부터 진도군까지 150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진행됐다. 곡선이 많은 해안도로와 고속도로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코스다. 시승에서는 디젤 모델인 뉴 840d xDrive를 운전했다. 국도에서 그란쿠페는 약간의 가속에도 가볍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2톤이 넘는 공차 중량이 무색할 정도다. 무엇보다 디젤 엔진이지만 진동과 소음을 거의 느낄 수 없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속도를 높여도 경쾌한 주행은 계속된다. 가속할수록 오히려

차체는 낮게 깔리며 안정적으로 나아간다. 그란쿠페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얹어 최대출력 320마력, 최대토크 69.34kg·m의 힘을 낸다.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5.1초에 불과하다.

그란쿠페는 특히 곡선 구간에서 뛰어난 그립감을 보여준다. BMW는 그란쿠페가 갖춘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기술이 코너링 시 정교한 바퀴 조향을 돕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기술이 차고를 조정해 무게 중심을 낮춰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그란쿠페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쉽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을 작동시켜 봤는데 차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는 일이 반복됐다.

그란쿠페의 판매가격은 1억3500만 원이며, 가솔린 모델은 90만 원 저렴한 1억 3410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 한화, GE와 항공엔진 부품 3500억 계약

### 세계 3대 제조사 모두 장기 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 GE에 3억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최첨단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최첨단 엔진 부품 공급에 성공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GE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일 GE의 최신 엔진 GE9X에 장착되는 고압 압축기(High Pressure Compressor) 케이스 및 고압 터빈(High Pressure Turbine) 케이스 등 6종과 LEAP 엔진용 고압 터빈 케이스류 등 40종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GE9X는 2024년까지, LEAP 엔진 부품은 2025년까지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가 기대되는 GE9X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엔진으로 각광받고 있는 LEAP 엔진에 대한 대규모 부품 수주에 성공함으로써 장기적 사업 확대 가능성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부품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창원사업장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동을



GE의 최신 항공기 엔진 GE9X.

시작한 베트남 사업장까지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5년간 미국의 GE와 P&W 영국의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항공 엔진 제작사들과 잇따른 엔진 부품 장기 공급계약에 성공하며 수주액만 약 201억 달러(약 23조3000억 원)가 넘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엔진 부품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였다”며 “앞으로 세계 3대 엔진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SK(주), AI 신약개발 기술 선점

‘스탠다임’에 100억 투자  
신약 후보물질 자동 발굴

SK(주)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사인 스탠다임(Standigm)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AI로 신약 후보 물질을 자동으로 발굴하는 혁신 기술을 선점해 신약 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바이오·제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주)는 데이터 학습(트레이닝)·후보물질군 생성(제너레이션)·최종 합성 후보선별(필터링) 등 신약 후보 물질 디자인 과정을 가상환경에서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AI 솔루션 기술을 확보한 스탠다임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스탠다임은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됐다. 이 회사에는 인공지능 개발자, 생물학자, 의학화학자(Medical Chemist), 시스템생물학자(System Biologist) 및 변리사 등 25명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선도물질 최적화기술인

‘스탠다임 베스트’를 통해 400만 건에 달하는 물질의 구조와 기능을 딥러닝해 새로운 신약 물질을 디자인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는 신약 물질을 합성해 약효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스탠다임은 현재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 등과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항암, 비알코올성지방간, 파킨슨병 등 다양한 분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7월 이후 비알코올성지방간에 대한 특허 3개를 출원했고, 항암제 등 연내 20개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다.

제약산업에서 AI는 신약 개발 대상 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단계에 적용돼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는 물론 개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상환경에서 실험이 실시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

SK(주)는 100% 자회사인 SK바이오파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이번 스탠다임 투자로 기술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삼성이 공들이는 청년교육, 조기취업 결실

삼성 SW아카데미 1기 수료  
‘500명 중 200명’ 이미 취업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생 500명 가운데 200여 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서울 멀티캠퍼스 교육센터를 포함해 대전, 광주, 구미 등 4개 교육센터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열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청소년 교육을 테마로 한 삼성전자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소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서울, 대전, 광주, 구미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1기로 선발된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해 200여 명이 IT기업, 금융회사 등에 조기 취업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상반기에는 삼성 신입공채 26

명을 포함해 KT, 네이버, IBK 기업은행 등 다양한 기업에 채용됐다. 하반기에는 신한은행, 대보정보통신, LG넥스원 등 20여 개 기업에서 채용 전형 시 우대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19일부터 3주간 잡페어(Job Fair)를 운영해 교육생들이 취업역량을 스스로 분석하고 취업점을 보완할 수 있는 취업상담, 면접스터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다음 달 4일부터 2일간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잡엑스포(Job Expo)’도 열려 기업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현장면접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3기 교육생을 선발 중이며, 내년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소프트뱅크 회장〉

# 이해진-손정의 표 'IT공룡'... 구글·페북과 '한판승부'

## 라인·야후재팬 경영통합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 = Z홀딩스와 경영통합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핀테크 영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

Z홀딩스는 소프트뱅크 산하 기업으로 일본의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곳이다.

◇Z홀딩스 경영 통합 기본 합의서 체결 =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Z홀딩스와 경영 통합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Z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합작법인을 통해 라인과 야후재팬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게 된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핀테크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합작법인은 라인과 야후재팬 외에도 야후쇼핑, 재팬넷뱅크 등 일본 내 다

## 네이버-소프트뱅크 50%씩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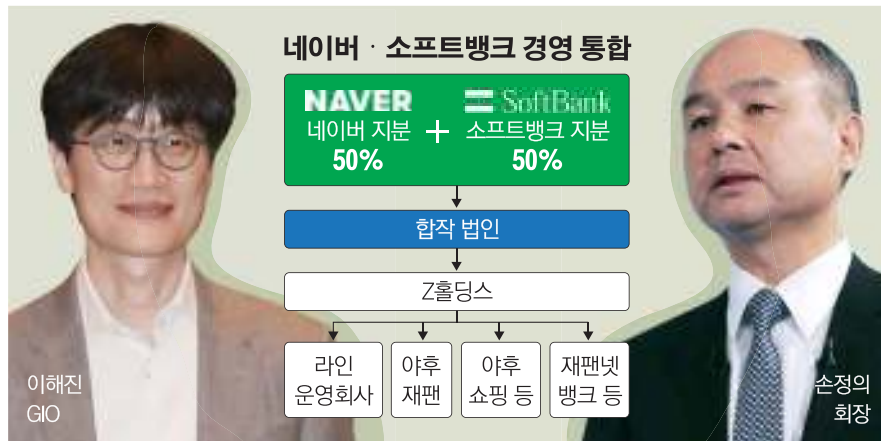
### 메신저·포털 기반 합작법인 설립

### 핀테크 중심 新사업 진출 시너지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다짐

양한 핀테크 영역을 아우르게 된다. 라인과 야후재팬의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일본을 넘어 전 세계까지 사용자를 확보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IT기술 투자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해진과 손정의의 만남 = 이해진 GIO와 손정의 회장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사람은 500억 원 규모의 '에스비넥스트미디어니오베이션펀드'를 함께 조성하며 투자 부문에서 협력한 바 있다. 게임 등 콘텐츠와 VR·AR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조성한 이 펀드에 네이버는 2017년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7월 손정의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저녁 자리에서 또 한번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외선 현대자동차 총괄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재계 총수와 IT업계 수장들이 함께했다. 이해진 GIO와 손정의 회장은 이날 회동에서 신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라인은 일본 시장에서 월간 이용자 수 8000만 명을 확보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야후재팬은 현지 포털업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사업자다.

◇라이벌 손잡고 글로벌 시장 정조준 = 양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핀테크 시장에서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인은 2015년 라인페이를 출시한 바 있지만 현지에서 라쿠텐과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며 일본 내 이용자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야후재팬은 포털 검색 시장에서는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지만 e커머스 시장에서는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양사가 협력해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구글을 비롯해 글로벌 공룡 IT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양사가 손잡고 역량을 합친다면 글로벌 거대 IT기업과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앞으로 시너지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번 경영통합이 핀테크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기술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가능성을 높িয়ে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LG유플러스 부회장〉

# 하현회의 5G 청사진... 콘텐츠 발굴에 5년간 2.6兆 쏜다

## LG유플러스 투자계획 발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 콘텐츠 발굴을 선도해 5G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통신방송 미디어 시장 선도계획을 공개했다.

하현회〈사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8일 열린 주요 경영진과의 정기 회의에서 CJ헬로 인수를 통한 미디어 시장 발전과 5G 생태계 조성 및 차별화 서비스 발굴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하 부회장은 “5G 혁신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수급과 차세대 유무선 기술개발에 5년간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통신방송 미디어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5년간 2조6000억 원 규모를 △AR·VR 등 5G 혁신형 콘텐츠 발굴·육성 △통신방송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및 관련 기술 개발 △케이블 서비스 품질 안정화 추진

## VR·AR 활성화·품질 안정화 등

### 5년간 年 투자금 대비 2배 늘어

### CJ헬로 인수로 차별화 가속도

이블 서비스 품질 안정화 등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계획이다.

하 부회장은 “현재 케이블 산업은 성장 정체 속에 망 고도화는 물론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CJ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케이블TV 고객에게도 LG유플러스의 혁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관련 기술을 확보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하 부회장은 “특히 5G 대표 서비스인 VR, AR 활성화를 위해 기반 기술 개발과 콘텐츠 발굴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등 차별화 서비스를 보다 많은 고객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밝힌 통신방송 콘텐츠 투자 계획은 최근 5년간 LG유플러스가 관련 분야에 집행한 연평균 투자액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 8VSB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 수준이 못 미치는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VR, A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대형’, ‘고화질’에 감정이 있는 TV 플랫폼에도 적용해 우선 고객에게까지 5G 차별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부터 관련 시장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AR, VR 등 5G 콘텐츠 육성과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1만9000여 편까지 전용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VR을 접목한 공연 영상, 게임, 웹툰 등의 혁신 콘텐츠와 AR을 적용한 엔터테인먼트, 교육, 홀트레이닝 콘텐츠 등의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AR스튜디오 2호점을 열어 AR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5G 서비스 3.0 론칭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지속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5G 콘텐츠 및 솔루션 수출 국가와 거래 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 버스 안에서 게임·영화

### KT-금호고속, VR 협력

KT가 고속버스 승객이 가상현실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슈퍼 VR’ 시대를 연다.

KT는 금호고속과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East에서 ‘고속버스 VR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VR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고속버스 전용 슈퍼 VR 상품 개발을 맡아 버스 안에서 시청하기에 적합한 VR 콘텐츠로 재구성한다. 금호고속은 탑승객을 대상으로 고속버스 VR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내 주요 고속버스 사업자 대상으로 슈퍼 VR 서비스를 유통하는 등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양사는 28일부터 서울과 광주 구간을 운영하는 금호고속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10대의 슈퍼 VR 단말을 비치하고 탑승객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고객들은 80여 편의 최신 영화를 고화질의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스포츠·공연·예능 장르의 VR 영상과 게임도 즐길 수 있다.

KT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파악한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고속버스 전용 슈퍼 VR 상품의 콘텐츠 라인업을 정교화시키고, 여러 구간의 고속버스에서 슈퍼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훈배 KT 뉴미디어사업단장은 “집과 체험존에서만 VR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도 안정적인 VR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VR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기영 장관 “AI 기술 연구개발, 10년간 2兆 투자”

## 인재 양성 등 국가전략 마련 공개 유료방송 간 M&A 연내 마무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유료방송 간 합병도 가능한 한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AI기술 육성방안에 관련된 국가전략을 올해 내로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AI 강국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이 말했다.

과기부가 구상 중인 AI 국가전략에는 기술 연구개발(R&D)에 10년간 약 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과 AI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이 대표적 AI 전문가이기도 하고 과기부가 최근 ICT 정책 담당인 2차관실 조직을 대폭 개편한 것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조직개편은 이른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강화를 위해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네트워크 정책 조정 전담기구인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최 장관은 “20년 넘게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됐던 정책 조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쇄신한 것”이라며 “AI인재 육성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만큼 꾸준히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간 인수합병(M&A) 문제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 심사가 진행 중이고 우리 부도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관련 자료 등이 완전치 않아 검토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와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내놴다. 이 역시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소재·부품·장비 R&D’ 방안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바이오 헬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미래차, 양자기술, 수소경제 등 미래 기술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우리금융그룹

We Believe 우리은행

# 절세와 연금을 잇다 우리은행 IRP가 있다

## 연말정산에서 퇴직연금까지 우리은행 IRP



### [우리은행 IRP]

· 연 7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 공제

-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인 시 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 가능

-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 합산 1,800만원 한도

### EVENT

2019.10.01~12.31

1 개인형 IRP 신규, 자동이체 증액, 추가 납입고객대상 추첨 이벤트!

·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00원) /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증정

2 TDF(생애주기펀드) 신규가입 및 기존고객 중 펀드가입고객 대상 100% 당첨이벤트!

·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or 신세계상품권 증정 / 대상 고객 중 추첨으로 스타벅스, 공기청정기 증정

▶ 이 퇴직연금은 해금후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해금후연금에 따라 해금보통형사기 보호하한,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해금보통 대상 금융 상품과는 별개로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내보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순이익과 수익률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해금후보통형에 한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해당상품에 관하여 (2019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수익률이 1년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IRP는 개별 운용상품의 이익 내용을 적당히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세부내용은 개별 상품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 퇴직연금 전용 정기해금의 만기 이전 중도해지비용 적용 등) ▶ 상기 내용은 2019.10.2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세법 및 금융지침(적금)에 변경 등 관련법 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벤트의 경품 및 행사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1599-3000)로 문의하십시오. ▶ 그 밖에 상세내용은 가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고, 중요한 점이 있으면 영업점 또는 투자상담원(고객센터1599-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는 은행사정상 사전 고지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 우리은행은 전행 혹은 분사를 통해 '대중을 소관으로 공신 및 복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2019.10.04 준법감사관-1821 심의필(무효기간: 2019.12.31)

# 필리핀에 뜬 ‘노브랜드’… 해외서 길 찾는 이마트

‘로빈슨스 리테일’과 손잡고  
‘센텐스’ 진출 이어 두 번째  
내년까지 각각 25개점 목표  
프랜차이즈로 리스크 줄이고  
해외 시장 조기안착 기회로

이마트가 몽골 3호점에 이어 ‘센텐스’와 ‘노브랜드’ 등 전문점을 앞세워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프랜차이즈(가맹) 사업에 공들이는 이유는 국내 부진을 씻어내면서도 현지 리스크를 줄일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다 베트남 2호점 진출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이마트로서는 해외 시장에 안착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마트는 22일 필리핀 유통업 2위 업체인 ‘로빈슨스 리테일(Robinsons Retail)’을 통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노브랜드 전문점’ 필리핀 1호점을 개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점포는 마닐라 ‘오르티가스(O-rtigas)’ 지역에 위치한 ‘로빈슨 갤러리



이마트는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유통그룹인 파와즈 알호케어사의 쇼핑몰 ‘알 낙힐 몰’에 센텐스 사우디 1호점을 열었다. 사진제공 이마트

아(Robinsons Galleria)’ 쇼핑몰 2층에 위치하며 약 271㎡(82평) 규모다.

노브랜드 필리핀 1호점은 총 630여 종의 상품을 우선 판매하고, 연말까지 670여 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 노브랜드 전문점 평균 1200여 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점포의 70%를 노브랜드 제품으로 채우고, 나머지 30%는 현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황중순 이마트 해외사업팀장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지속해서 러브

콜이 있는 만큼 노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달 기초 화장품 브랜드인 ‘센텐스’를 필리핀 마닐라 복합 쇼핑몰 ‘로빈슨 플레이스몰’에 오픈했다. 필리핀 내 센텐스와 노브랜드는 모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로빈슨스 리테일’이 실질적으로 매장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마트는 상품 수출 대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양 사는 내년까지 각 25개씩의 노브

랜드와 센텐스를 필리핀에 열기로 했다.

이마트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의 경기 불황과 온라인 업계의 공세로 인한 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마트는 올 2분기 적자에 이어 3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40% 추락한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상시 초저가 전략을 통해 최근 3년 내 분기 최고 매출을 거뒀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은 이마트로서는 온라인 강화와 전문점 확대, 해외 진출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짚은 상태다.

눈에 띄는 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한 간접 진출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진출은 직접 현지에 진출한 대표 사례다. 2017년 정치 리스크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현재 직접 진출한 해외 시장은 베트남이 유일하다. 2015년 호찌민에 고밥점으로 베트남에 첫발을 내딛은 이마트는 올 상반기에만 360억 원의 매출을 거두며 현지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마냥 매끄러운 것만은 아니다. 이마트는 이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현지 2호점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에 5~6개 점포를 낼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운동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가 멈춰서면서 아직 2호점 건물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에 반해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은 속도가 붙었다. 2016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몽골 1호점을 낸 이마트는 이듬해 9월 2호점, 올 9월 3호점을 오픈했다. 모두 몽골 알타이그룹의 ‘스카이트레이딩’에서 점포 운영을 맡은 프랜차이즈 형식이다. 이마트는 상품을 수출하고, 로열티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파와즈 알호케어(Fawaz Alhokair)’가 운영을 맡은 센텐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점했다.

직접 진출은 부지 마련부터 건물을 짓고 마케팅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 비용이 높은 반면 간접 진출은 브랜드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상품을 공급하는데 그쳐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또한 간접 진출은 안정된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전통 유통 채널에서 벗어나 PB(자체브랜드) 제품에 공들이는 이마트로서는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나라에 적합한 포맷을 택해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백화점 임원들 ‘20대 멘토’에게 배운다

AK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 통해 밀레니얼 문화 체험  
롯데·현대百貨도 명품 소비층 떠오른 2030세대 잡기 총력

백화점업계에 회춘 바람이 분다.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자 백화점업계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안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이 온라인에 밀리는 가운데 백화점은 해외 명품 매출이 매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그나마 선방한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가 명품의 핵심 소비층으로 좁아지며 백화점업계는 이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젊은 사원과 경영진의 소통을 추진하는 등 매장 곳곳에 젊은 감각 심기가 한창이다.

AK플라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를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9월부터 ‘리버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리버스 멘토링’은 20대 직원들로 구성된 멘토와 현직 대표이사·본부장·팀장 등으로 구성된 멘티가 한 조를 이뤄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를 체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리버스 멘토링 1기’는 ‘을지로, 성수동, 익선동, 문래동’ 등 서울 시내를 무대로 밀레니얼 세대들이 즐겨 찾는



숨겨진 맛집과 핫플레이스인 블루보틀, 원더박스 등을 찾아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공유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의사 결정하는 경영진이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어야 이들에게 맞는 상품 개발, 매장 구성,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어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도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재도약을 위한 혁신으로 젊은 사원과 경영진 간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롯데백화점은 3월부터 ‘밀레니얼 트렌드 테이블(MTT)’ 제도를 시행하며 변화하

는 소비 트렌드에 대처하고 있다.

밀레니얼 테이블 제도는 밀레니얼 세대의 주력인 만 24~39세 직원이 3개월간 경영진에게 최신 이슈와 트렌드 등 젊은 문화를 전수하는 멘토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핵심 고객층인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상품과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 적용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백화점은 4월 밀레니얼 세대를 유인하기 위해 젊은 직원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밀레니얼 세대’ 맞춤형 조직문화 제도를 내놓았다. 현대백화점은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는 사원·대리급 직원들이 젊은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장의 브랜드 유치와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 자신이 발굴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인 ‘크리에이티브 존(Creative Zone)’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업계가 온라인 유통업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수입 명품이다. 실제로 명품 부문 매출이 백화점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명품의 주요 소비층이 밀레니얼 세대”라며 “이들을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주요 의사결정에 나서는 경영진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패턴,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스타벅스〉

## 스벅이 불 지핀 ‘다이어리 전쟁’

‘수집’ 목적으로 인기… 할리스·카페베네 등 잇따라 출시

연말을 앞두고 다이어리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모바일과 온라인이 부상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아날로그 감성 다이어리의 인기는 매년 사그라들 줄 모른다.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다이어리 전쟁은 올해도 계속된다. 업계에서는 ‘수집’에 목적을 둔 일명 ‘덕후’가 증가한 데서 인기 배경을 찾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까지 잇달아 2020 다이어리를 내놓으며 연말 대목 잡기에 나섰다.

대부분의 커피전문점 다이어리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미션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한정판으로 구성된다. 소장가치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브랜드에서 음료를 sip여 잔 마셔야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전형적인 희소성을 앞세운 마케팅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달 29일부터 2020 스타벅스 플래너와 펜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증정받을 수 있는 e-프리퀀시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2020 스타벅스 플래너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다이어리 브랜드인 몰스킨과 협업해 그린, 라이트 블루, 피플, 핑크 총 4가지의 색상별로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e-프리퀀시를 통해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제조 음료 총 17잔을 구매하면 플래너 1권 또는 펜 세트 1

개 중 하나를 증정한다.

엔제리너스는 스누피 한정판 다이어리를 내놔다. 엔제리너스는 14일부터 세계 유명 캐릭터 ‘스누피(SNOOPY)’ 캐릭터를 활용한 2020년 한정판 다이어리를 선보였다. 엔제리너스 다이어리는 프랑스 파리 출신의 세계적인 스트리트 아티스트 ‘앙드레 사라이바(Andre Saraiva)’가 스누피를 그린 작품을 국내 최초로 다이어리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엔제리너스가 출시한 2020년 한정판 다이어리는 부록 소재의 양털 같은 부드러운 촉감의 원단을 사용한 다이어리 외커버로 탈부착이 가능하다. 구성품은 스누피 다이어리, 스누피 스티커, 아메리카노 무료, 음료 3종 할인권 포함 2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스누피 볼펜 추가 구매 시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 티(Tea)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도 내달 22일까지 12종의 쿠폰이 들어 있는 ‘2020 공차 다이어리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참여는 겨울 신메뉴 2잔을 포함, 총 7잔을 구매해 공차 멤버십 앱 스탬프를 적립하면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등도 다이어리를 내놔다. 카페베네는 자사의 고양이 캐릭터 ‘베네킷’과 함께 애국정신이 깃든 ‘카페베네 2020 다이어리 세트’를 선보이며 일본 불매운동을 정조준하는 행보를 보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위스키 ‘임페리얼’ 출고가 최대 21.5% 인하

드링크인터내셔널이 ‘임페리얼’의 주력 브랜드 임페리얼 12년(사진)과 17년 등을 최대 21.5% 인하한다.

드링크인터내셔널은 국제정 개정 고시를 반영해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드링크인터내셔널은 8월 위스키 업계 최초로 저도주 임페리얼 스무스12, 스무스17 제품을 각각 15% 가격 인하한 데 이어 임페리얼 클래식 12년과 17년, 저도주 ‘임페리얼 35’까지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

임페리얼 브랜드를 국내 판매하는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위스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임페리얼 12년 450ml 출고가는 현행 2만6334원에서 2만4288원으로 7.8% 인하한다. 임페리얼 17년 역시 7.1% 내린 3만7202원으로 출고가가 조정된다.

저도주 ‘35바이 임페리얼’ 350ml 출고가



는 1만9052원에서 1만6621원으로 12.8% 인하되며, 450ml 출고가는 2만6334원에서 2만669원으로 21.5% 가격은 낮춘다.

드링크인터내셔널 김일주 회장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발맞춰 이번 임페리얼 12년, 17년 등의 가격을 인하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에 위스키를 음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공모 경쟁률 높았는데… ‘상고하자’ 체면 구긴 새내기株

## 하반기 상장 25개사 주가 분석

### 수요예측 경쟁률 평균 ‘640대 1’

### 기관 공모가 올리고 상장 당일 매도

### 윌링스 등 13개사 주가 곤두박질

### 전문가 “공모주 시장 체질 바뀌어”

올해 하반기 IPO를 통해 증시에 데뷔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상고하자’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 첫날에는 시초가와 비교해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기관투자자가 받은 공모주 물량 대부분을 상장 당일 매도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공모주 시장 문화 조성을 위해선 단기 매도 수요를 부르는 공모주 물량 배정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하반기 IPO 기업 공모가·시초가 현황

| 종목명     | 공모가     | 시초가     | 공모가 대비 등락률<br>(시초가) | 상장 당일 증가 |
|---------|---------|---------|---------------------|----------|
| 윌링스     | 12,500원 | 22,800원 | 82.40%              | 29,600원  |
| 플리토     | 26,000원 | 31,600원 | 21.54%              | 27,800원  |
| 에스피시스템스 | 4,900원  | 9,800원  | 100%                | 14,800원  |
| 한독크린텍   | 15,100원 | 24,500원 | 62.25%              | 19,250원  |
| 올리파스    | 20,000원 | 30,600원 | 53%                 | 24,800원  |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IPO 기업 중 상장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기업들은 총 25개로, 모두 코스닥기업이다. 본지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14일 종가 기준 시초가를 하회하는 종목은 18개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13개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시초가 대비 낙폭이 가장 큰 기업은 윌링스로, 시초가 2만 28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82.50% 하락했다. 한국바이오젠(-71.17%), 에이에프

더블류(-64.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경하이테크는 3만 3250원에서 5만 7400원으로 69% 뛰었고, 레이(56.75%), 라온피플(35%) 등은 시초가보다 오름세를 보였다.

25개 기업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등락률은 25.31%였지만 시초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의 평균 등락률은 -7%였다. 즉 새내기주 대부분이 상장 시 공모가 대비 높은 시초가를 기록했다가, 당일 장이 마감될 쯤에는 하락세를 보인 셈이다.

## 코스피 거래대금 5兆대 회복 ‘상승 랠리’ 기대감

### 코스닥 한 달 평균 코스피 앞서

### “단발성 늘어… 확인 기간 필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다시 5조 원대를 탈환했다. 코스닥 거래대금도 몸집을 불리면서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이 평균 5조 4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5월 평균 5조 3828억 원을 기록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6개월 만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8월 급락장 이후 감소세를 이어왔다. 8월 평균 4조 6628억 원에서 10월 4조 4211억 원으로 2억 4170만 원(-5.18%) 줄어든 상태였다. 시장 위축

이 이어지던 9월 초에는 2조 9242억 원(9월 2일)으로 2조 원대에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4일부터 15일까지 5조 원대를 유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동안 6조 802억 원어치가 거래되며 8월 이후 3개월 만에 6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은 평균 5조 807억 원으로 10월(5조 3349억 원)에 이어 5조 원대를 두 달 연속 유지하고 있다. 5일과 6일에는 각각 6조 2216억 원, 6조 616억 원으로 2거래일 연속 6조 원대를 넘겼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앞서는 일도 잦아졌다. 10월에는 지난해 5월 5조 9384억 원을 기록한 이후 일일 거래대금이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코스닥 한

달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앞서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지수가 실제 상승한 영향이 더 컸던 만큼 거래대금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거래대금은 코스피 지수에 후행하는 만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래액도 늘어났다고 본다”며 “거래대금이 거래량과 주가를 곱한 값인 만큼, 주가가 오르면 거래대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 거래대금이 단발성으로 늘어났다”며 “추세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려면 이를 확인할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뉴로스 ‘수소차 공기압축기’ 생산 확대

### 현대기아차 생산 활성화 발맞춰

### 400억 BW 자금 중 117억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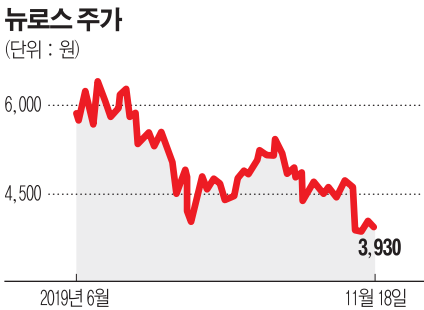
### 연간 8500대 양산 2만대로 늘려

항공 터보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기기인 터보 블로어(산업용 송풍기)와 원심형 터보압축기를 생산하는 뉴로스가 수소차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뉴로스가 새롭게 공모 발행하는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입 자금 중 29%가량이 수소차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뉴로스는 2000년 삼성테크윈 출신 김승우 대표이사가 설립해 2012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현재 수처리 시설 및 산업용 공정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인 터보 블로어가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항공환경제어장치 및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용 블로어, 수소전기차용 공기압축기 등을 제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뉴로스의 핵심 기술인 공기 베어링(Airfoil bearing)이다. 뉴로스는 우주항공 기술을 도입해 최초로 터보 기기에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품은 기존 윤활유를 이용한 볼 베어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 기술을 적용한 공기 압축기는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내구성 측면에서도 기존보다 월대 우위에 있어, 현재 수소 전기차를 만드



는 현대차의 1차 협력 업체인 한온시스템에 뉴로스가 납품하고 있다.

2018년부터 공기압축기를 단독 공급 중인 뉴로스는 현재 연간 8500대의 양산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이번 공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117억 원가량을 투자해 생산 캐파를 연 2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넥소의 경우만 해도 작년 한 해 727대 판매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0월까지 3207대가 팔렸다. 넥소에 들어가는 뉴로스의 공기압축기 판매 대수도 작년 1163대에서 올해는 3분기까지 3953대를 기록해 240%가량 신장했다. 이에 따라 수소차 부문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4% 남짓이었지만 올해에는 13%로 성장했다. 게다가 현대차는 수소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도 양산을 준비 중으로 뉴로스의 납품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뉴로스는 기아차에서 개발 중인 수소차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협력 증으로, 현대와 기아차의 수소차 개발과 생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기압축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카티스텀, 캐시카우로 내년엔 흑자전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 기업탐방

### 메디포스트

###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 세계 최초 상용화 매출 급성장

### ‘카티스텀’ 日서 투 트랙 임상

### 성공 땀 시장 독보적 위치 선점

“카티스텀” 성공으로 임상 디자인에 대한 확신은 물론 상업화 노하우도 터득했다. 내년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겠다.”

판교 본사에서 만난 김은영 메디포스트 대외협력실장은 이같이 말했다. 국내 최대 제대혈 은행인 ‘셀트리’,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텀’ 등의 캐시카우로 매출을 견인하며 신약 개발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2000년 설립돼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은행 사업과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양윤선 대표이사는 삼성서울병원 임상병리과 전문의 출신이

다. 근무 당시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이 골수 기증자를 찾기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켜보다 제대혈 은행 필요성을 느끼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제대혈 은행뿐 아니라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까지 사업 영역을 늘렸고, 2012년 ‘카티스텀’을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중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2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777% 넘게 상승했고,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444억 원, 영업손실 6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카티스텀의 해외 임상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카티스텀은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제나 인공관절을 이식하는 수술과는 달리 손상된 연골을 줄기세포 성분으로 재생시키는 시술 방법이다. 마이크로프랙터 등의 의료가 술이 재생시키는 연골이 주로 섬유질이었다면, 카티스텀은 강도가 단단한 유리질 연골을 재생시켜 통증 증 재발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해외 임상은 선진국 중 무릎 골관절염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2분의1a 임상이 완료된 뒤 차상위 임상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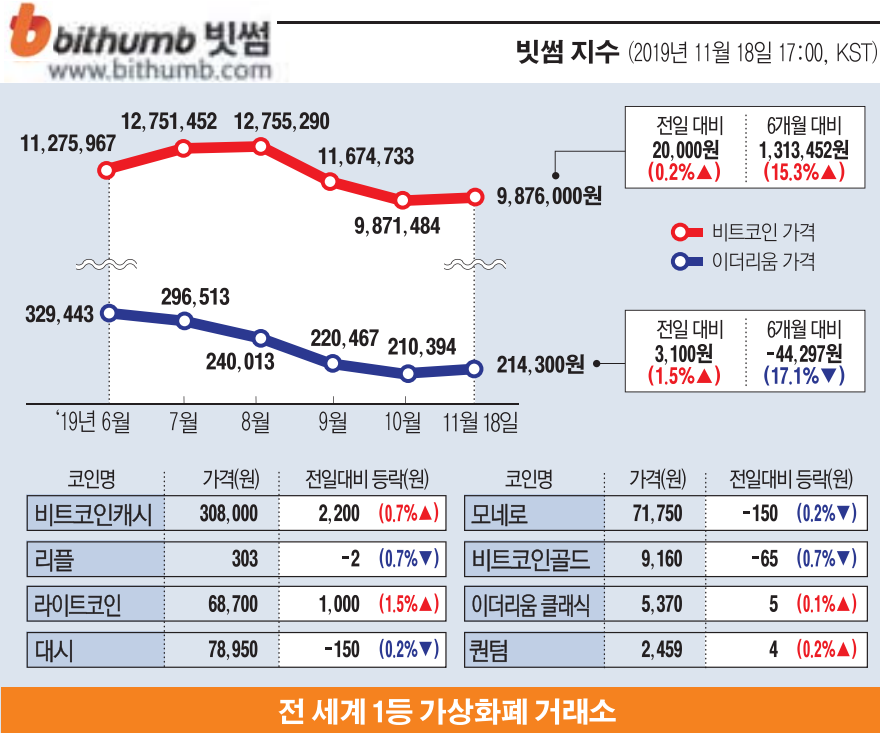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번 달에 임상 2상 신청을 마쳤다.

특히 일본에서는 ‘투 트랙 임상’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은 한국 임상 결과를 토대로 1, 2상을 뛰어넘고 곧바로 3상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골자다. 신청이 완료된 2상의 경우 관절염 증세로 인해 뼈가 휘어버리는 등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리교정술과 병용하는 임상이다.

김은영 실장은 “일본에서 무릎 골관절염 대상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으로는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며 “일본 인구구조 특성상 퇴행성 질병에 대해서 보험급여 대상에도 포함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회사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매출을 견인해온 제대혈 은행도 그 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용도로 제대혈을 보관했지만, 현재는 뇌성마비, 소아당뇨, 발달 장애로까지 줄기세포 치료법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 미래에셋대우 '정해진 구간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퇴직연금 수익률 '年 최대 3%' 구현

미래에셋대우는 10월 25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신규구조의 '정해진 구간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에 대해 5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 관련 상품을 내놔다.

특히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2017년 9월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상품이 단 1건도 없었던 환경에서 투자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신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금융사의 상품에 대한 일종의 특허권으로, 해당 금융사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증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한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은 대부분 4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사용권이었으며 최대 부여 기간은 6개월이다.

이와 관련 이번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 상품은 역대 최장 기간인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만큼 상품의 독창성과 고객 편익 제고 측면을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규모는 약 190조 원까지 성장했지만 퇴직연금 연도별 수익률은 연 1.01%까지 점차 하락했다"며 "고령화 시대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0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정해진 구간 ELB' 상품을 출시했으며, 상품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구조의 신상품임에도 발행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저금리 여파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연 2% 초

반인 점을 고려할 때, 연 3.0%를 추구하는 이번 신규 상품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이다.

이번 상품은 매월 특정 조건 관찰일의 KOSPI 200 지수 증가가 전월 관찰일 증가 대비 +/- 5% 일정 범위에 있으면 매월 0.25% 쿠폰을 적립해 만기에 누적된 수익(최대 연 3.00%)을 일시 지급한다.

특히, 매월 +/- 5%의 '정해진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가가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 구간을 변경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NH투자증권 'NH-Amundi 액티브 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

# 성과 우수 헤지펀드 '소액 분산투자'

NH투자증권은 국내 유수의 사모헤지펀드 운용사의 대표펀드에 분산 투자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NH-Amundi 액티브 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 펀드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사모 헤지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사모 헤지펀드는 최소가입금액(1억~5억 원)이 매우 높아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품이였다.

이후 2017년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이후, 최근 500만 원 이상이었던 사모재간접 공모

펀드에 대한 최소 가입금액까지 폐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사모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H-Amundi자산운용에서 7월 출시한 'NH-Amundi액티브 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우수한 사모 헤지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다.

이 펀드의 차별적인 특징은 주식 관련 전략(롱 온리, 롱쇼트, 비상장 등)을 주로 사용하는 헤지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

면서 철저한 로스컷 관리,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 비중 조정 등으로 하락에 대한 위험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NH-Amundi 액티브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는 성과가 우수한 헤지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함께, 투자 대상 펀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실사, 매니저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췄다.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시장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및 편입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전달래 NH투자증권 상품기획부 부장은 "NH-Amundi 액티브 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는 국내 주식 관련 전략의 헤지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을 추구

할 수 있는 펀드"라며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다양한 헤지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개인 고객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NH-Amundi 액티브 헤지펀드크리에이터 펀드'는 일반 클래스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펀드는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NH투자증권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삼성증권 'TDF(Target Date Fund)'

# 수익률·절세... 전문가가 알아서 '척척'

삼성증권이 최근 저금리 상황 속에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TDF(Target Date Fund)'를 추천 상품으로 꼽았다.

최근 저금리 기조는 일반적인 예금 상품의 수익률을 대폭 낮추고 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찾고 있으며 절세 상품도 그 대상 중 하나다.

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20~30대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인 성향인 장년기 투자자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식이다.

삼성증권은 은퇴설계 연구소 운영 및 연금펀드 토털케어 서비스, 안심플랜, TDF 자산운용 선두 등 오랜 운용 역량을 기반으로 TDF 홍보 및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신상근 팀장은 "TDF는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는 연금의 특성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라며 "삼성증권 연금계좌는 비대면으로 3분이면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고, 다양한 TDF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가

입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위험 상품의 투자 실패 및 위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TDF 상품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실제 국내 TDF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1조3730억 원(설정액 기준)에서 7월 2조 원을 넘었고, 현재(11월 1일 기준) 2조 5355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TDF 상품성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 확대도 가능하다.

지난해 퇴직연금 규모가 19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TDF가 은퇴 시장 내에서 가장 잠재력은 상당하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TDF 활성화를 위한 'TDF맛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신규로 금액을 입금하거나 연금을 이전하는 고객이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입금 후, 이벤트 대상인 6개 운용사의 상품 중 원하는 TDF를 매수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된다.

각각 운용사의 TDF를 200만 원 이상 매수하면 1만 원을, 최대 5개 운용사의 TDF를 매수하고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대신증권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 코스피200 수익률 + α ... 수수료 부담 ↓

초보 투자자 A 씨. 그의 재테크는 오직 은행 예금뿐이다. 그런데 주식투자에 관심이 생겼다.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에 거의 도달하면서 그간 국내 증시를 짓눌러온 악재가 해소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쓸쓸하게 챙겼다는 주변 지인들의 자랑도 한몫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불안, EU와 미국 간의 무역분쟁 가능성,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A 씨의 불안감도 커졌다. 투자를 결심했지만 애써 마련한 목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주식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데 따른 걱정이 앞선 A 씨는 회사 근처 대신증권을 찾았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는 A 씨에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관해 설명했다. 직접 거래하지 않아도 일정한 보수만 지급하면 전문가가 자산을 운용해준다는 말에 A 씨는 간접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런 그를 위해 금융주치의는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추가 알파 전략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를 추천했다.

이 상품을 A 씨에게 추천한 이유는 첫째로 상품의 이해도가 쉽기 때문이다. 운용 전략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KOSPI200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률

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KOSPI200지수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KOSPI200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미세 조정을 실시해 KOSPI200지수와 추적 오차를 최소화시킨다.

두 번째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에 투자해 지수 대비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모주 투자, 블록딜, 합병비율차익거래 등 이벤트드 리본 전략과 통계적으로 검증된 퀀트 운용전략 등 적극적인 알파 운용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실제로 2002년 설정 이후 꾸준히 KOSPI 200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적을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10여 년간 펀드매니저 교체 없이 지속해서 장기운용을 해왔다. 한결같은 운용 철학과 전략을 공유하고 적용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의 편의와 수익률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연 1%를 넘지 않는 저렴한 보수와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상품 상담 및 가입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과 HTS,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가입 대상 및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총 신탁보수는 연 0.365~0.895%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미국포스트유니콘랩’

美 유니콘 기업 상장 초기 분산 투자

한국투자증권은 5월 미국 유니콘 기업 상장 초기에 분산 투자하는 ‘한국투자미국포스트유니콘랩’을 출시했다.

‘유니콘 기업의 IPO 흥행’이 향후 글로벌 주도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상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엄선한 유니콘 기업을 바탕으로 상장 초기 분할 매수해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2010년 이후 미국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누적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보여왔다.

통상 상장 초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들 중 내재가치가 크고 훌륭한 기업들을 선별해 편입한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FANG으로 유명한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상장 이후 각 1200배, 30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제2의 아마존과 넷플릭스는 누가 될까? 2019년은 제2의 아마존과 넷플릭스를 꿈꾸는 미국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상장한다.

유니콘 기업이란 상장전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상장 스타트업들을 지칭한다.

올해 상장한 리프트, 핀터레스트, 우버 등이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이었다.

상장이 임박한 기업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앞글자를 따서 PULPS (Pinterest, Uber, Lyft, Palantir, Slack)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의 미국시장 상장 러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미국의 현지에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도 미국 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한국투자미국포스트유니콘랩은 미국 포스트 IPO투자 중 혁신 유니콘기업에만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랩 서비스이다”라며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당사 리서치 센터의 역량을 집중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투자미국포스트유니콘랩’은 거치식과 적립식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소가입 금액은 거치식 2000만 원, 적립식 3000만 원이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전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

장기 자산 관리에 유리한 美 ETF 선별

신한금융투자는 변동성을 낮추고 꾸준히 자산을 관리하려는 고객에게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문을 받아 신한BNPP자산운용이 운용한다.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는 무역분쟁, 중동갈등, 민족주의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시장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경기방어 자산분산 투자와 상승 대응자산 선별 투자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장기 성과와 방어력이 검증된 6개의 글로벌 핵심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

6개의 핵심 자산은 미국채, 투자등급 회사채, 미 달러, 금, 저변동성 주식과 퀄리티(기업의 질적지표가 우수한) 주식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 대응자산에 투자해 상승장 참여도 추구하며 이러한 리밸런싱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다.

또한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상장 ETF 투자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운용 전략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최

적화 기법을 통해 전략적 투자비중을 산정한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간 비중을 조절하는 전술적 배분을 거쳐 각 자산별 최적의 ETF를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투자자는 한 번의 펀드 가입만으로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전문가의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알아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점은 연금자산(퇴직연금, 개인연금, IRP)과 같이 장기로 운용하며 편입자산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상품에 유리하다.

김중현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자산배분전략부장은 “주식 비중이 크지 않고 안전자산 위주로 편성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며 “연금과 IRP

계좌 운용에 적합함은 물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BNPP글로벌밸런스EMP펀드’의 총 보수비용은 연 1.055%이고(Class C1기준) 퇴직연금 전용 클래스는 연 0.735%이며 환매 수수료는 없다. 펀드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과 환율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펀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KB증권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실물자산 채권 기반 올 수익률 11%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 시장 또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할 만큼 경기 모멘텀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형 대비 낮은 변동성과 안정성을 지닌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전 세계 투자등급 실물자산 채권과 하이일드 실물자산 채권 간의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다양한 금리 사이클에서 양호한 성과를 기대할 수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를 추천하고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전 세계 실물자산 채권에 분산 투자한다.

실물자산 채권이란 인프라, 부동산, 천연자원 등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기업이나 실물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 하이일드 회사채 및 대출채권을 말한다.

실물자산 채권은 기반이 되는 실물자산의 자산보강 효과, 경기 상황 관계 없이 지속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등으로 인해 일반 회사채 대비 부도율은 낮고 회수율은 높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KB글로벌

리얼에셋인컴펀드’는 인프라,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기존 회사채나 하이일드 펀드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교적 높은 인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가 낮아지고 채권 기대수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2018년 6월 27일 국내 설정 후 A 클래스를 기준으로 설정 이후 수익률 8.03%, 연초 이후 수익률 11.25%를 달성(2019년 11월 15일 기준)하고 있다. 펀드 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300조 원 이상의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담당한다. 신금호 IPS본부장은 “최근 높아진 변동성으로 주식, 채권의 전통자산보다는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체자산 성격의 실물자산 채권에 투자하는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역시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성으로 주식, 채권의 전통자산보다는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체자산 성격의 실물자산 채권에 투자하는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 역시 우수한 성과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는 투자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KB글로벌리얼에셋인컴펀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투자증권 ‘유진 자문형 랩어카운트’

고객 성향에 맞는 자산 운용 상품 제공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초 투자자문사 및 자산운용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유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출시했다. 각 운용 스타일별로 특화된 자문사의 운용 전략을 접목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현재까지 가치투자형, 성장투자형, 시장중립형, 자산배분형 등 총 4가지의 운용 스타일별 상품을 운용 중이며, 고객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

‘유진 자문형 랩어카운트’의 특징은 증권사가 내부 선정 프로세스를 통해 직접 자문사를 실사하고 운용전략, 리스크관리 등 여러 평가요소를 분석하여 운용 스타일별 최적의 자문사를 선별한다는 점이다. 여러 자문형 금융상품 중 어떤 자문사가 우수한지 파악하기 어려운 고객

을 대신하여 증권사가 자문사를 선별하고 운용 스타일별 상품을 제시하기 때문에 고객은 적합한 자문사를 찾는 수고를 덜게 된다. 또한, 최소가입 금액도 해당 자문사의 투자일임 최소가입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양질의 자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가치투자형 상품은 파인 투자자문과 더퍼블릭 투자자문이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파인 투자자문은 전통적 가치투자 방법에 근거하여 확실한 사업모델과 내재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자문사다. 더퍼블릭 투자자문은 안전 마진을 추구하며 소비재 시장에서 검증 가능한 B2C 사업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

성장투자형 상품은 퍼시픽 투자자문이 자문을 담당한다. 퍼시픽 투자자문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확률 투자에 집중하여 전체 투자시스템을 AI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투자경험 또한 데이터화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 사이클상 우호적인 섹터를 발굴하고 이 섹터 내에서 글로벌 성장산업 내 경쟁력을 갖는 기업을 선택, 투자하는 전략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시장중립형 상품은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운용된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은 연기금 등 주요 기관자금을 운용 중이며, 시장

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시장을 추종하여 운용하고, 성장산업 중 내재가치 대비 괴리율이 큰 종목을 편입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아 오랫동안 벤치마크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자산배분형 상품은 파운트 투자자문의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으로 운용되고 있다. 짐 로저스가 투자한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파운트는 금융공학 및 머신러닝 분야의 전문인력이 모여 우수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사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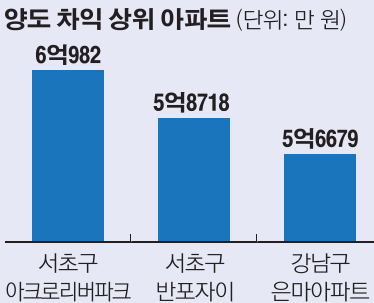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 하나금융투자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 실태’ 조사 \*2017년 12월~2018년 3월 기준

| 실수요 · 투자 목적 구매 상위 아파트 비중 |                    |        |
|--------------------------|--------------------|--------|
| 실수요                      | 금천구 남서울힐스테이트       | 86.80% |
|                          | 구로구 신도림4차 아파트      | 86.40% |
|                          | 노원구 롯데캐슬루나         | 78.40% |
| 투자                       | 송파구 파크리오           | 67.00% |
|                          | 성북구 길음뉴타운8차 아파트    | 56.50% |
|                          | 은평구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아파트 | 56.10% |

|              |              |
|--------------|--------------|
|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 52.4세        |
|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 50.8세        |
| 금천구 남서울힐스테이트 | 50.0세        |
| <b>평균</b>    | <b>45.1세</b> |
| 서대문구 아현역푸르지오 | 40.7세        |
| 성북구 길음뉴타운8단지 | 41.3세        |
| 양천구 목동힐스테이트  | 41.6세        |



## 정부 “편법증여·대출 의심거래 엄정 대응”

##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불법전매 등 연말까지 현장점검

##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 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  
성과 관련해선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재부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 거래·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진입장벽 높아...젊은 층엔 '그림의 떡' 아파트 1위  
**전용 76㎡도 18억 '잠실주공5'**

## 서울시 매매거래 현황 조사

매입자 평균 연령 52.4세 가장 높아  
가장 젊은 단지는 '아현역 푸르지오'  
'이크로 리버파크' 6억 양도차익 1위  
실거주 목적 60%...투자 목적 40%

(59.8%), 투자 목적(전세나 월세 끼고 매  
인한 경우) 거래가 933건(40.2%)인 것  
으로 추정했다. 특히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  
오'와 길음뉴타운 8단지에선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비율이 각각 67.0%, 56.5%에 이르  
는 게 서울시 추산이다. 반면 남서울 힐  
스테이트에선 구매자의 86.8%가 실소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약 9억5412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은 평균 6억5167만 원(68.3%), 대출 등은 3억245만 원(31.7%)가량이었다.

평균 거래가격이 가장 높았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였다. 조사 기간 아크로 리버파크는 평균 24억2493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4861만 원으로 조사 대상 단지 중 가장 싼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 차익 1위 자리로 차지했다. 아크로 리버파크 보유자의 평균 매매 차익은 6억982만 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 양도 차익은 조사가 진행된 4개월 동안에만 실거래 가격이 평균 1억9833만 원 오르면서 더욱 커졌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5억8718만 원), 강남구 은마아파트(5억6679만 원) 순으로 양도 차익이 컸다.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는 상대적으로 강남 고가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뤄졌다.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의 비중은 7%였지만, 개포주공1단지(27.6%)나 마야아파트(17.8%)에선 증여 비중이 각각 20%포인트(P), 10%P 이상 높았다. 기존에 고가아파트를 가진 부모 세대가 신흥부부 등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 이를 증여한 사례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집값이 계속 비싸지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주택시

서울 아파트 가운데 젊은 층이 가장 진  
입하기 어려운 단지는 어디일까? 정답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이다.

18일 서울시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서울 시내 31곳과 경기지역 3곳의 아파트 단지 2614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매입자의 평균 연령은 45.5세에 달했다. 최연소 거래자는 2세, 최고령자는 91세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아파트 매입자 평균 연령이 높았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 젊은 층의 구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잠실주공5단지의 매입자 평균 연령이 52.4세로 가장 높았다. 최근 잠실주공5단지에선 가장 작은 전용 76㎡형도 18억3000만 원까지 오르면서 3040세대와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50.8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힐스테이트' (50.0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49.1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대문구 북아현동 '하현역 푸르지오' (40.7세)와 성북구 '길음뉴타운8단지' (41.3세)는 서울에서 매입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아파트에 속했다. 이들 단지는 강남권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직주근접성이 좋아 젊은 층의 수요가 많다.

서울시는 조사 기간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실거주 목적 거래가 1368건

‘DMC 금호 리첸시아’ 이달 분양  
가재울뉴타운 첫 주상복합아파트



금호산업이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DMC 금호리첸시아(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한다.

DMC 금호 리첸시아는 가재울뉴타운 첫 주상복합 아파트다. 2022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棟) 규모로 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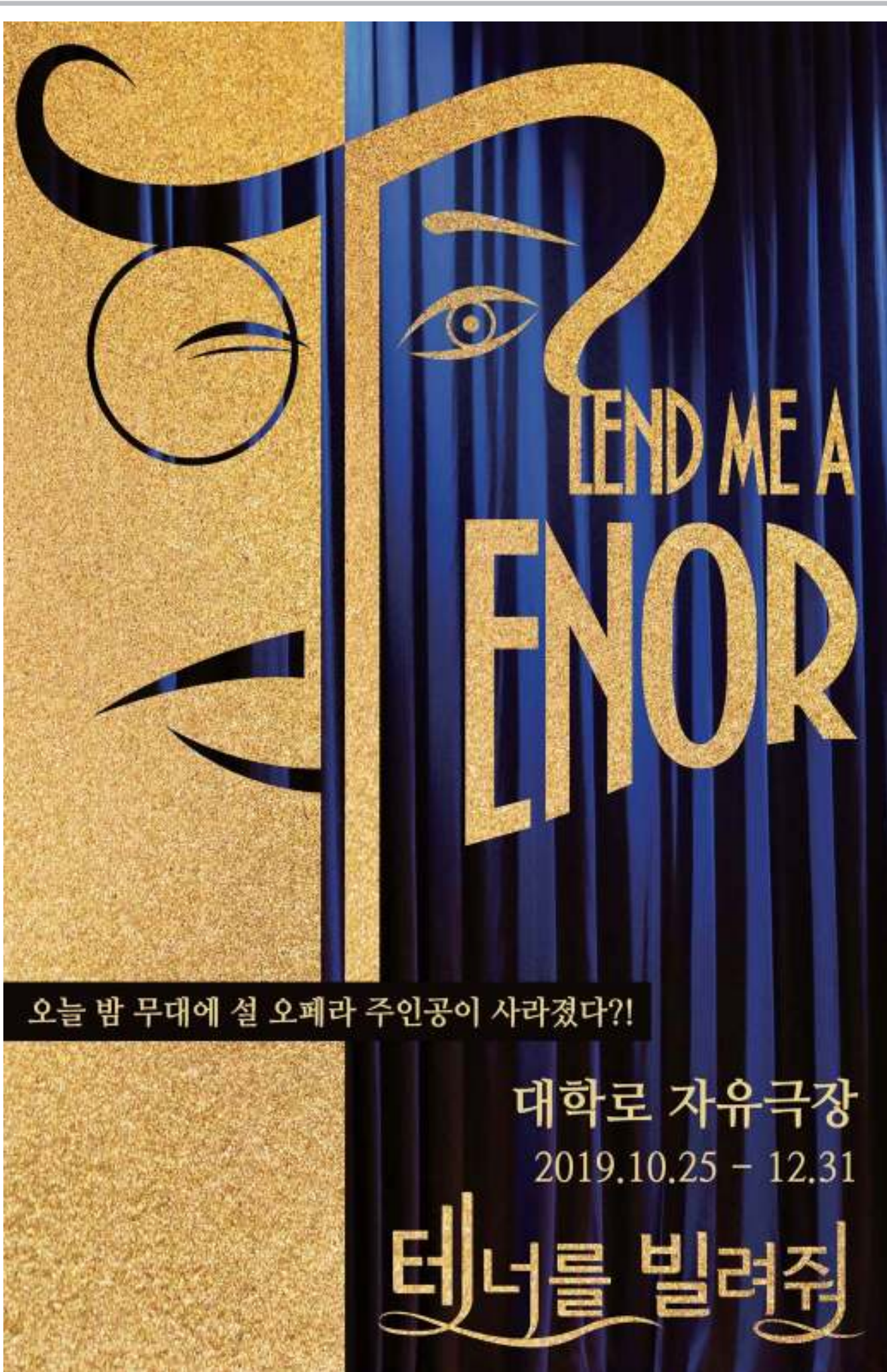
총 가구 수는 450가구로, 이 중 26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금호산업은 전용면적 16~84㎡ 등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형 중심으로 단지를 구성했다.

DMC 금호 리첸시아는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서울역, 공덕, 용산 등 도심 출퇴근이 편하다.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성산로 등 서울시내 주요 도로

를 오가기도 편하다. 금호산업은 강북횡단  
선과 월드컵대교가 개통하면 단지의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DMC 급호 리첸시아는 남향 중심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좋다. 또 가구마다 3배이(방 두 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하는 설계) 구조와 2면 개방형 거실(앞뒤로 창이 난 거실)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DMC 급호 리첸시아의 견본주택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마련됐다.

박종화 기자 pbell@





# 부드럽지만 묵직한 힘... 가솔린 심장, 디젤을 넘다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가솔린 SUV’ 급부상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시작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뒤집혔다.

디젤차에 비싼 돈을 들여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지만 드러난 실상은 무용지물이었다. ‘가솔린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명제는 설 자리를 잃었고, 디젤에 대한 신뢰도 추락했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 미련 없이 디젤을 버리고 가솔린을 선택하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이다.

준중형 SUV는 직렬 4기통 1600cc급 가솔린 엔진으로, 중형 SUV는 2000cc 가솔

## ‘친환경 이슈’에 가솔린 관심

## 터보엔진 장착 등 기술 발전

## ‘파워 약하다’는 단점 보완

린 터보 엔진을 얹고 경쾌한 주행능력을 뽐내는 중이다.

그렇다면 디젤과 가솔린 엔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는 엔진의 구동원리를 깨달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디젤 엔진은 1980년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가 부품기업 보쉬와 커먼레일 디젤을 개발하면서부터다.

디젤을 고압으로 분사해 큰 힘을 내는 커먼레일 방식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아궁이에 커다란 장작 10개를 던져 넣으면 불은 사그라들고 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압축비 10바(bar)다. 이 장작을 A4용지 크기로 쪼



①캐딜락 에스컬레이드  
②③BMW X6  
④BMW X5 M

갠 다음, 1600장으로 나눠 넣으면 순간적으로 타오른다. 바로 고압 직분사 1600바(bar)다.

연소방식도 가솔린과 다르다.

디젤은 연료를 압축해 폭발시키고,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한 불꽃 점화 방식이다.

연료를 압축하는 디젤 엔진은 엔진 피스톤의 상하운동이 길다. 가솔린 엔진은 피스톤의 상하운동 거리가 짧다.

상대적으로 디젤보다 피스톤 운동이 빠르고 여러 번(엔진 회전 수) 왕복할 수 있다. 가솔린 엔진의 회전 수 한계치(약 6000rpm)가 더 높은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이다. 순간적인 힘은 물론 디젤이 더 크다. 피

## V6 3000cc 엔진 대형 SUV

## 웬만한 중형차 쉽게 따돌려

## 연비 좋아지며 영역 확대

스톤이 위에서 내려치기 때문이다. 디젤 엔진이 커다란 해머로 ‘한 방’에 내리치는 방식이라면, 가솔린 엔진은 작은 장도리로 ‘여러 번’ 내리치는 형태다.

디젤 엔진은 오르막을 오를 때 낮은 회전 수로 성큼성큼 오를 수 있다. 반면 힘이 모자란 가솔린 엔진은 높은 회전 수를 쓰며 힘겹게 올라가야 한다.

고속도로에선 가솔린의 장점이 오히려

드러난다. 디젤은 회전 수 한계(약 4000rpm) 탓에 높은 회전 수를 써야 한다.

반대로 회전 수 영역(약 6000rpm)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가솔린 엔진은 고속에서 더 여유롭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물론 최고 속도 역시 가솔린이 한결 높다.

최근 가솔린 SUV는 예전처럼 대배기량이 아니다. 엔진 기술이 발달하면서 낮은 배기량으로도 넉넉한 힘을 낼 수 있다. 준중형 SUV는 1600cc급, 중형 SUV 역시 2000cc급 가솔린 엔진이면 충분하다.

반대로 대형 SUV는 여전히 V6 3000cc급 엔진을 얹는다. 직렬 4기통보다 한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더 육중한 힘을 낼 수 있다. 배기량이 높은 것은 ‘최고급’이라

는 상징적 이유도 존재한다.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을 얹은 대형 SUV라면 웬만한 중형차 정도는 가볍게 룸미러에 가둘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성능도 지니고 있다.

디젤 엔진이 신뢰를 잃어버린 사이, 가솔린 엔진은 점진적으로 SUV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디젤에 대한 불신과 미세먼지 논란, 나아가 예전보다 개선된 엔진 및 연비 기술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당분간 고급 및 대형 SUV 시장에서 가솔린 엔진의 존재감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타보니 현대차 팰리세이드 vs 쉐보레 트래버스

# 연비는 팰리세이드, 가속력은 트래버스가 ‘한 수 위’

팰리세이드, 앳킨슨 엔진 사용  
용장한 라디에이터 그릴 갖춰

트래버스, 최고 출력 314마력  
5m 넘는 길이로 넉넉한 공간

‘SUV=디젤’ 공식은 이미 깨졌다. 강화된 환경 규제와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진동을 피해 가솔린 SUV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대형 SUV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완성차 업체는 수요에 맞춰 효율과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델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 가솔린 SUV인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V6 3.8과 한국지엠(GM)이 직수입한 쉐보레 트래버스 V6 3.6 모델을 비교해본다.

두 모델 모두 외관은 웅장하다. 팰리세이드는 거대한 그물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수직으로 연결된 주간주행등은 볼륨감 있는 차체가 한층 커 보이게 한다. 역시



쉐보레 ‘트래버스(왼쪽)’와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주행 모습.

수직으로 자리한 후면부 리어램프는 전면부 헤드램프와 통일감을 준다. 가솔린 디자인이라고 디젤과 다르지 않다.

트래버스는 전면부가 좀 더 날렵하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아래로 나뉜 듀얼 포트 디자인 덕이다.

듀얼 포트는 쉐보레의 패밀리룩으로, 트래버스의 육각형 그릴은 이퀴녹스와 유사하다. 일직선으로 배치된 후면부 리어램프와 크롬 장식은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이다.

덩치는 트래버스가 조금 더 크다. 팰리세이드는 길이×너비×높이가 4980×1975

×1750mm다. 트래버스는 5200×2000×1785mm다. 트래버스가 팰리세이드보다 4cm 더 길고, 2.5cm 더 넓으며 3.5cm 높다. 모두 도심 주차구역에 딱 차는 덩치다.

팰리세이드는 시프트 레버(기어봉) 대신 전자식 변속 버튼 방식을 갖췄다. 덕분에 운전석이 굴곡 없이 매끈하다.

변속 버튼은 위치가 높은 ‘브릿지 타입 하이콘솔’에 자리하고 있어 운전석을 감싸는 듯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버튼이 많다고 느낄 수는 있다.

반면 트래버스의 실내는 단순하다.

둘 다 5미터에 이르는 차체 덕에 실내



공간은 여유 있다. 팰리세이드는 2열 레그룸이 1077mm로 성인 남성이 앉아도 공간이 넉넉하다. 3열에 앉으면 무릎이 2열에 닿기는 하지만 시트를 뒤로 젖힐 수 있게 만들어 답답함을 덜었다. 트래버스는 850mm의 레그룸으로 3열이 조금 더 여유 있다.

가솔린 SUV답게 소음을 잡았다. 두 차종 모두 실내에 있으면 엔진 소음을 듣기 어렵다.

가속력은 트래버스가 한 수 위다. 3.6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얹은 트래버스는 최고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36.8kg·

m의 힘을 낸다. 가속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육중한 차체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고속에 도달한 뒤에도 가속력은 유지된다.

팰리세이드는 트래버스보다 배기량이 더 큰 3.8람다II 엔진을 얹었지만, 최고출력이 295마력에 머무른다. 출력보다 연료효율에 집중한 ‘앳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앳킨슨 사이클 엔진은 연료는 작게 먹으면서 힘을 더 크게 만들도록 설계된 엔진이다. 일반적인 오토 사이클 엔진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고회전에 불리해 저속 토크가 낮다. 다만 연료 효율이 높다.

일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대부분이 앳킨슨 사이클 엔진인 것도 이런 이유다.

그 결과 팰리세이드의 리터당 복합연비는 9.6km에 이른다. 실제 도심과 고속 도로를 주행한 결과 계기판에는 11km 이상의 연비가 기록됐다.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를 감안한 현대차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초기 가속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팰리세이드도 일단 속도가 붙은 뒤에는 안정적 가속력을 보인다.

가격 면에서는 팰리세이드가 경쟁력을 갖췄다. 팰리세이드 최상위 트림이 트래버스 하위 트림보다 저렴하다.

팰리세이드의 판매가는 3475만~4030만 원, 트래버스는 하위 트림이 4520만 원, 최상위 트림은 5522만 원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농업·농촌·농협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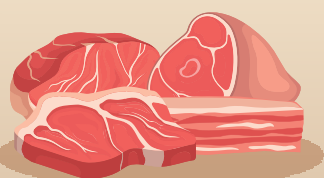
# 매일 밥상 미식회

좋은 식재료로 요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365일 집에서 미식을 즐기는 시대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농·축산물로  
식탁의 즐거움을 높이겠습니다



오늘의 생활미식  
**뭐든지다  
돼지고기**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우리 돼지고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NH

농협

# “중년 유튜버 스타 발굴…새로운 도전 응원합니다”

## 김다림 LG유플러스 스마트홈마케팅전략팀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유튜버스쿨서 3개월간 교육  
10개팀 선발에 700명 몰려…액티브 시니어 ‘인생 2막’ 지원

‘50플러스 세대(만 50~64세)’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여가생활을 즐기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일·활동 생태계 확장을 위해 LG유플러스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해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다. 실무에서 50플러스 세대를 접하고 이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김다림 LG유플러스스마트홈마케팅전략팀장을 최근 만났다.

김 팀장은 “2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IPTV 서비스 ‘U+ 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LG유플러스와 50플러스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할 지원하는 비전에 공감해 양해각서(MOU)를 맺고 협업 중이다.

김 팀장은 “50플러스 유튜버스쿨을 통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시니어 세

대에게 당사의 미디어 서비스 기획 노하우를 전파했다”며 “제휴 관계인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담당자와 전문적인 MCN(Multi Channel Network) 교육자들을 섭외해 유튜브 계정 생성, 영상 편집, 업로드 방법 등을 교육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연간 캠페인으로 ‘50플러스 유튜버스쿨’, ‘50플러스의 시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팀장은 “50대 이상 유튜브 이용자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이들이 콘텐츠를 소비만 하는 주체였다면 이제는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한다”며 “3개월간 50플러스 유튜버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해 유튜버 스타를 꿈꾸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자생력을 길러주고 스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굴·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유튜버 스타’를 꿈꾸는 시니어 지원자를 만난 경험도 전했다. 그는 “50플러스 유튜버스쿨 최종 면접에 참여했는데, 10팀 선발에 무려 700명이 접수



‘50플러스 유튜버스쿨’ 캠페인을 진행하는 김다림 LG유플러스 스마트홈마케팅전략팀장은 “앞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를 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며 “특히 50플러스 유튜버스쿨 수료 후 대상을 수상한 ‘강철 헬스전략’ 강철진 님은 면접 때부터 ‘FBI(Fantastic Body Information)’ 모자를 쓰고 와 유튜브 채널 비전을 피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했다.

LG유플러스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위치한 서울시내 6곳에 스마트 라이프체험존을 구축, 방문하는 모든 시니어들이 ‘U+ tv 브라보라이프’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팀장은 “앞으로 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50플러스재단 중부캠퍼스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구축해 유튜버를 꿈꾸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편집 등의 기술적 스킬을 모두 이수한 시니어 유튜버들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실제 방송 진행 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희 기자 jh6945@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서울대·유니세프 등에  
보유 주식 7만 주 기탁

김석수<사진> 동서식품 회장이 소외계층 등을 위해 개인 보유 주식을 내놴다.

김석수 회장은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에 ㈜동서 주식 총 7만 주(15일 종가 기준 12억 원)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한편,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료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개인 보유 주식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기탁했다”며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 등에 매년 기부금을 전달하며 미래 후학 양성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통영에코파워 대표에 장경일 상무

HDC그룹은통영에코파워 대표이사에 장경일 상무를 14일부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신임 대표는 홍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현대산업개발(현 HDC)에 입사해 고속도로, SOC 건설현장,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4공구 현장 소장 등을 거치며 인프라와 민간SOC 분야의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후 인프라기획팀장, 건설관리실장, 인프라사업역량그룹장 등을 거치며 HDC현대산업개발의 인프라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과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우울증 예방 홍보대사 된 ‘직통령 펭수’

복지부·EBS, 정신건강 증진 콘텐츠 만들어 유튜브 송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사진>’가 우울증 예방을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EBS ‘자이언트펭TV’와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을 제작해 15일 EBS1TV 및 유튜브에 송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이언트펭TV는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온 자이언트펭귄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EBS 프로그램으로, 17일 기준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 68만3000명에 달한다. 펭수는 ‘직통령(직장인들의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년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 복지부와 EBS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했다.

홍익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정신건강 관련 예산을 더욱 폭넓게 확보하고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 (주)한화, 기업 사회공헌상 잇달아 수상

‘대한민국봉사대상’ 이어 ‘서울시사회공헌대상’ 받아

(주)한화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한화는 15일 열린 ‘2019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한화 자전기 평화여행-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 프로그램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은 기업과 복지시설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주)한화는 201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한화 자전기 평화여행’ 프로그램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화 자전기 평화여행’은 (주)

한화가 서울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MIZY(미지)’, 새터민청소년대안학교인 반석학교와 함께하고 있는 ‘자전기 중주 프로그램’으로 새터민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9월에 진행하고 있다.

(주)한화는 앞서 5일 ‘2019 대한민국 봉사대상’도 수상했다. ‘대한민국 봉사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주)한화는 국가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훈 프로그램의 성과



를 인정받았다.

(주)한화 사회공헌 관계자는 “(주)한화는 ‘함께 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이웃에게 소중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수진

◆관세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민정기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방대성 △심사정책과 윤정은 △조사총괄과 염승열 △인전세관 세관운영과 마순덕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최전식

◆동양생명 ◇승진 <사업단장> △GA대구경북 안준영 △GA호남 조영록 ◇전보 <사업부장> △부산경남 채창우 △호남

박판용 <사업단장> △GA중부 김진선 △GA부산경남 김길수

◆CBS △베이징 특파원 안성용 △워싱턴 특파원 권민철

◆서울신문STV그룹 ◇서울신문STV △서울신문STV 부사장 겸 한국정책신문 대표이사·발행인 오운암 ◇한국정책신문 △편집인 겸 주필 원종희 △부사장 정성환 △산업부 부국장 최민철 △금융증권부장 강준호

◆일요신문 △경제팀장 임홍규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국장 전규열

## 부음

▲김영하 씨 별세, 변재일(삼성전자 부장)·재우(신한생명 동부GA지점장)·재상(신구대학교 교수) 씨 모친상 = 1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 발인 20일 오전 08시, 02-3010-2263

▲한병용 씨 별세, 한광진·광자·광실·현실·경하 씨 부친상, 김운아(신세계푸드 제조서비스 부문 대표) 씨 장인상 = 18일,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5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31-219-6654

▲안상태 씨 별세, 안국준(SC개발 전 대표이사) 씨 부친상 = 17일, 천안 하늘공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41-553-8000

▲류창훈(전 성희여고 교장) 씨 별세, 류홍기(전한국애부비대표)·강기(한국수자원공사 전문위원)·협기(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장)·은숙·향기·서영(여주대 교수) 씨 부친상, 김지홍(세명대 교수)·홍영식(한경비즈니스 대기자) 씨 장인상 = 18일, 경북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54-840-0010

## 게시판

보성언론인상에 손상진·김광석 씨

보성(普城)언론인회(회장 조상현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대표)는 18일 2019년 보성언론인상 수상자로 손상진 전 KBS 스포츠국장과 김광석 YTN 감사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다.

지방세연구원장 배진환 전 실장 선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배진환 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을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배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배 원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안부 세정과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쟁법학회장 이항 고려대 교수 선출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이항 교수(자유전공학부장)가 한국경쟁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쟁법학회는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추창근 칼럼



노설실장

확대재정에 소득주도성장론이 오버랩 된다. 근로자 임금부터 올려 소비와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 설계는 처음부터 모순이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했고, 실패한 결과가 넘치는데도 청와대는 옳은 길이라고 계속 고집한다. 오류를 댔기 위해 재정을 퍼붓는다. 배경이 ‘현대통화이론’이라면, 또 허튼 이론에 기대 나라 경제를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내모는 꼴이다.

정부가 확대재정에 매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내년 513조 5000억 원의 확장 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계 및 연구기관들의 재정위기 경고도 잇따른다.

정부는 우리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확대재정을 권고했음을 내세운다. 내년 예산안은 갇힐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적자 편성이다. 60조 원 이상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 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1%에서 39.8%로 높아져,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인 40%를 위협한다. 국가채무는 2023년 1000조 원을 넘고, 2028년엔 1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비율도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급등한다.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성장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크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투

입해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단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확대재정은 위기 때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균형재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또한 재정운용의 기본이다.

지금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허수(虛數)라는 지적도 많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문 대통령은 흥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진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이어, 청와대가 또 상식을 무시한 이단(異端)의 경제이론에 경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이 그것이다. 1990년대 초 나온 학설인데, 주류 경제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돼 오다 최근 미국에서 갑자기 관심을 모았다. 요약하면, 재정적자가 아무리 불어나도 정부가 무한정 돈을 찍어갈 수 있으니 국가부도 같은 파탄은 없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인프라나 복지에 망나 돈을 풀어야 소비와 투자, 고용도 늘어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돈의 수요·공급이 통화량을 결정한다는 보편적 경제이론, 재정은 곧 세금이라는 상식의 부정이다. 주류 학계의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은 당연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그냥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고, 미 재무장관 출신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초(超)인플레이션의 재앙으로 가자는 이론”이라고 말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아예 “쓰레기(garbage)”라고 했다.

요즘 국내에서도 MMT를 주장하는 이론가가 적지 않다. 그간 별로 명함도 못 내밀다가 경제를 살릴 새로운 진리인 양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정부가 돈을 마구 풀면 물가·금리 급등, 신용등급 추락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제대로 논증하지 못한다. 그들은 국가채무가 GDP의 200%를 넘는 일본이 파탄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로, 국채 대부분을 자국민이 떠안고 있으니 망하지 않고 버틴다. 정작 일본 재무성과 중앙은행은 “MMT는 체계적 이론이 아니다”라며 논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확대재정에 소득주도성장론이 오버랩 된다. 근로자 임금부터 올려 소비와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주성’ 설계는 처음부터 모순이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했고, 실패한 결과가 넘치는데도 청와대는 옳은 길이라고 계속 고집한다. 오류를 댔기 위해 재정을 퍼붓는다. 배경이 MMT라면, 또 허튼 이론에 기대 나라 경제를 실험실의 모르모트로 내모는 꼴이다. 궤변임이 드러난 뒤, 잘못된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심히 두렵다.

kunny56@

정책발언대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



‘공평한 수월성’. 꼴등과 일등의 창조적 공존.

돌을 한 교실에 밀어넣고, 중간쯤을 향해 강의하는 한국의 공(公)교육에서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핀란드와 중국이 평준화(平準化)와 수월성(秀越性)을 동시에 성취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낸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교는 꼴찌를 끌어올리는 공평한 교육으로, 고교부터는 영재(英才)의 능력 계발을 독려하는 차별화 교육으로 ‘공평한 수월성(fairness & excellence)’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이런 교육의 ‘창조적 공존’을 뒷받침하는 엔진은 교사의 경쟁력이다. 핀란드는 석사 이상만 교사 자격을 주어 교사의 질을 높였고, 사회주의 중국은 능력에 따라 교사를 차등 대우해 ‘특별한 교사’를 길러내고 있었다.

꼴등과 일등이 공존하는 핀란드 교육

1970년대 핀란드에선 교육 평준화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핀란드 정부가 일반학교와 영재학교를 합쳐, 9년제 의무 교육기관인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로 통합한 것이다. 그 이유를 핀란드 교육청의 라우카넨 자문위원은 ‘소국(小國)의 생존술’로 설명했다. “인구 500만 명의 핀란드에선 소수 영재뿐 아니라 대다수 학생의 역량을 함께 키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에선 “둔재(鈍才)를 양산한다”며 반발했다. 계속되는 반발에 핀란드 집권 여당과 교육부는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에게만 교사 자격을 주기로 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약속하며 설득 작업을 계속했다. 라우카넨 자문위원은 “데모나 극력시위는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컨센서스를 이뤄갔다”고 말했다.

이후 모든 핀란드 종합학교에는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사들이 모두 배치됐다. 학습 부진아만을 위해 특

별수업도 진행시켰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개인별 특성과 학업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다.

덕분에 지금 핀란드 종합학교 9학년(한국의 고1) 학생은 세계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40개국 학생 평가 결과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수준도 공히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면엔, 숙제 등 타율적인 방식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방식을 우선하는 방침이 자리 잡고 있다.

꼴찌를 독려해 위로 끌어올리는 핀란드의 교육은 중학교까지만다. 고교부터는 철저한 경쟁체제로 바뀐다. 진학부터 차별화된다. 종합학교 졸업생의 60%가 진학하는 일반고는 학년과 학급 개념이 없는 ‘무(無)학년제’다. 수준이 높으면 신입생이라도 졸업반 학생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고교 수준을 뛰어넘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학별, 학과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는 대단히 치열하다. 원하는 대학·학과에 가려고 수차례 시험을 치르는 게 다반사다. 핀란드가 스위스경영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4년 연속 대학교육 경쟁력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핀란드의 고교 무학년제 교육방식이 우리로서는 매우 파격적으로 보이고 적용시키기 부적합한 부분도 있지만, 경쟁이 갖는 장점과 대학과정까지 이어지는 우수인재의 치열한 자기 노력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우수인재에 끼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한 학생은 결코 아니며 그들 하나하나에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교육이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빌헬름 딜타이 명언

“개념이 확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개념을 만든다.”

독일의 철학자, 생(生)의 철학 창시자. 자연과학에 대해 정신과학의 영역을 기술적·분석적·심리적 방법으로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칸트의 비판정신에 영향을 받아, 헤겔의 이성주의·주지주의에 반대해 역사적 이성의 비판을 제창했다. 그는 오 늘 태어났다. 1833~1911.

☆ 고사성어 / 삼년불비(三年不蜚)

3년간 한 번도 날지 않는다는 뜻으로, 뒷날에 웅비할 기회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원전은 여씨춘추(呂氏春秋).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3년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자 오거(伍舉)가 “언덕에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새는 어떤 새입니까?”라고 장왕에게 물었다. 장왕의 대답. “3년씩이나 날지 않았으니 일단 날면 높은 하늘에 오를 것이오. 또한 3년씩이나 울지 않았으니 일단 울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랄 것이오.”

☆ 시사상식 / 뉴노멀 중년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여 자기계발, 취미 활동 등 ‘나’를 위해 소비하는 40~50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젊고 건강하면서도 멋진 모습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

☆ 고운 우리말 / 사위다

불이 다 타고 사그라들어 재가 된다는 뜻. 불을 붙이는 것은 ‘사르다’. ‘사위다’는 문학 작품에서 사람의 애뜻한 마음을 표현할 때 쓰이는데, 애가 끊고 속이 타는 심정을 표현할 때 ‘사위어가다’라고 한다.

☆ 유머 / 닭살 부부의 반전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여전히 닭살로 보이는 부부가 부부동안 모임에 참석해 아내를 ‘달링’이라 불렀다. 친구가 아내 사랑 비결을 물었다. 남편의 대답.

“사실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는 아내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SK바이오팜의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진출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세노바메이트는 SK가 후보물질을 발굴부터 임상 개발, 허가 절차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진행한 신약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중 자력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을 제대로 마무리한 곳은 SK바이오팜이 유일하다.

1993년 신약 연구·개발(R&D)에 뛰어든 SK는 26년 동안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에 주력했다. 첫 번째 성과는 올해 3월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의 FDA 허가로 나타났다. 솔리암페톨은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진출도 가시화했다.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15일(현지시간) 판매 승인을 권고하면서 내년 1월께 시판 여부가 결정

기자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바이오 콘손’ SK와 삼성의 서로 다른 길

될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 중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곳은 SK 외에도 삼성이 있다. 두 기업의 전략은 대조적이다. SK가 ‘뚝심’이라면 삼성은 영리했다. 삼성은 미래가 불확실한 신약 대신 개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바이오시밀러를 선택했다.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듬해 삼성바

이오에피스를 설립하고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에 뛰어들었다.

삼성이 내놓은 제품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시밀러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유럽 시장을 먼저 공략해 차근차근 점유율을 높이고

# 흑자전환 제대로 보자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핵심적 실수는 종목이 아니라 매수 단가다.”

‘가치투자의 비밀’의 저자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말이다. 아무리 우량주라도 비싼 값을 치렀다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잘못해 너무 높은 금액을 주고 매수했다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영원한 자본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한 그야말로 증시 시계제로 상태다. 나만의 투자철학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외치는 성장성, 수익성, 내재가치는 머나먼 안드로메다의 언어로 들릴 뿐이다.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도, 가치투자자들의 PER, PBR 역시 실제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시장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실적 얘기다.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물론 CEO의 경영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치다. 투자자 입장에서 분기별로 발표되는 회사 실적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주식은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만큼 돈 잘 버는 기업의 주가 역시 잘 오른다.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실적개선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 데스크칼럼

이채용

자본시장1부장



질이 문제다.

특히 흑자전환은 실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흑자전환(이하 흑전)했다면 기대심리 반영에 따른 주가 급등 역시 당연한 수순이다. 흑전은 단순한 현재 상태라기보다 현재를 기준으로 한 수익을 말한다. 회사 자금을 까먹고 있던 기업이 이제는 수익을 내는 구조로 바뀐다는 의미다.

그동안 적자로 저평가됐던 주식이 단번에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투자 메리트가 있어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흑전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회계상으로 일회성 비용 처리와 매출에 있어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회계 장부를 수정할 수 있다. 분식회계 수준은 아니더라도 입출금이나 여러 비용을 밀고 당기면서 한 분기 성과를 흑자로 바꿀 수 있다.

보고서만 믿고 기업의 상황이 나아졌고, 이제는 적자에서 탈피해서 실적 개선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비단 코스닥 소형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대형우량 기업 역시 방식은 다르지만 자칫 실적 착시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실제 사례도 꽤 많다. 분기보고서상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순이익을 냈지만 매출이 부진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해당 기업들은 인력 감축과 투자 축소 등 과도한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매출 부진은 물론 소비위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출 증가 없이 이익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래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건 당연하다.

기업들이 비용절감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로 현시점에서 재무제표상 실적은 좋을 수 있지만 비용절감이 미래 순이익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장기적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장기 성장성을 갖추기 위한 목적의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실적이 좋지 않다면 오히려 저가에 좋은 종목을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흑전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고 답석 매수에 나선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주식은 분명 실적에 기반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면 차라리 이미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정된 기업 가운데 향후 실적이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찾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mywish73@

## 문선영의 異見



부동산부 차장

## 강하면 부러진다

상한제 시행 지역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상 지역이었으나 막상 발표에서는 제외됐던 과천의 경우, 발표 이후 집값 상승률이 2배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집중 타깃이었던 강남 4구(서초·송파·강남·강동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되려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벌써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정부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성급하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데 두 달가량이 걸렸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정책이 나온 지 이제 2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부의 주장대로 올 연말, 아니 내년 초까

지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집값에 내집 마련이 간절한 개인적인 바람에서라도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시장은 분양가를 때려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싸게 분양된 아파트를 보고, 금세 주변 시세만큼 오를 것이란 기대에 ‘로또 청약’이 판을 치는 시장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앞선 여러 정책들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규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정부는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규제가 가해질수록 수요자들은 ‘똥똥한 한 채’를 꼭꼭 감싸며 똥공에 맞서고 있다.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규제에 앞서 설득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moon@

## 사설

## 주 52시간제 땀질 말고 근본적으로 손 봐야

정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기간은 9개월의 유예시간을 준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한다.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기업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종업원 50~299명의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데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충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1년 이상 시행유예를 위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별연장근로도 예외 허용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가 다급한 상황에 몰려 내놓은 한시적 땀질처방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

을 늘리고, 근로자의 ‘워라벨(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4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 강행하면서 수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건설,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정유, 철강 등 업종과, 시간싸움을 벌여야 하는 연구개발(R&D) 직종 등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납기와 물량을 맞추는데도 52시간제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나 탄력근로기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연장근로도 정부가 간섭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일률적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곳은 없다”며 “개인이 시간 아닌 성과로 평가받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개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용하지 않는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신산업 창출과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아이

야뇨증이란 밤에 자는 동안에 소변이 무의식적으로 배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야뇨증이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신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한 신체적 성숙의 지연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밤 동안 소변 양을 정상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한다거나, 자는 동안 배뇨근을 제대로 이완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방광이 충만할 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등의 신체적 미성숙 때문이다.

야뇨증은 실제적으로 몸에 어떤 기질성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광에 소변이 충만할 때 이러한 느낌을 머릿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다가 깨지 못한다는 이론이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모가 야뇨증이 있을 경우 그 아이들에게는 77%에서 야뇨증이 나타나고 부모 중 한쪽만 야뇨증이 있으면 44%, 양쪽이 정상이면 15%에서 자식에게 야뇨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야뇨증은 유전적

요소가 관여한다고 추측돼 왔다.

최근에는 야뇨증 원인을 유전학적 차원에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야뇨증 관련 염색체가 발견되어 앞으로 야뇨증 치료에도 이용될 것이다. 야뇨증과 정신적 이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야뇨증 치료 후에 그 환자에게서 학습능력의 저하나 사춘기에 정신건강, 성장, 신체발달 등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야뇨증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행동교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치료 시기는 5세 이후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소아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도 매년 약 15%는 자연 치유되지만 굳이 치료를 하는 이유는 야뇨증이 어린이에게 수치심, 죄책감, 실패감 등 정신적·정서적 문제를 유발해 이러한 감정이 나중에 행동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치료를 해주어야 정신적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김경도 중앙대학교 비뇨의학과 교수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거기서  
거기라고요?

그래서 전,  
IBK 기업은행으로 갑니다

[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기본, 고금리 상품으로 수익률은 UP,  
가입과 관리는 i-ONE뱅크로 손쉽게! 이런 IRP 못 보셨을 겁니다 ]



**신용도 높은 고금리 상품 제공**  
·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면서,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 제공  
(2019. 11월 기준, 1년물 : 고금리 상품 2.16% VS 은행예금 1.67 ~ 1.70%)



**초간편 가입과 관리**  
· i-ONE뱅크로 간편한 가입  
· 로보어드바이저로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추천



**최대 115만 5천 원의 절세혜택**  
· 연간 납입금액 7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 그 외 13.2%)

IBK IRP 개인형퇴직연금 받고 또 받는, 즐거운 혜택

행사기간 : 2019년 12월 31일 까지

1.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선착순 1,600명)

2. 파리크라상 2만 원 상품권 (선착순 300명)

가입자부담금 10만 원 이상 입금 및 자동이체 10만 원 이상 등록 고객

가입자부담금 200만 원 이상 신규 고객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5461호(2019.11.11) 게시기한: 2019.12.31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모든 보호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 기업은행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